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창간호

恩光衍世

은 광 연 세

12

2016





관람안내

관람시간 09 - 18시(매표 마감 - 오후 5시)

휴 관 일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 람 료 성인 1,000원, 단체 800원. 초등학교생 무료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9시까지
연장개방 무료개방(홈페이지 참조. 문의)

대관안내

기본시설

교육관 좌석수 200석. 강당면적 221.90m² 무대면적: 28.22m²

오전, 오후, 야간 기준

그 밖의 사용 냉난방시설(1시간), 상업용 영상 촬영, TV촬영, 영화 촬영
※ 시설허가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사용료가 부가됩니다.

찾아오시는길

버스 (동문로터리, 용진교 하차 도보 5분)

좌석 10, 28, 38, 70, 90, 92, 100, 200,

1001-001(심야), 1001-002(심야),

1001-003(심야), 1001-004(심야), 1008(심야)

일반 2, 3, 9, 30, 43, 51



김만덕기념관

주소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건입동)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



제호설명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摺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篇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은광연세(恩光衍世) :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배 때 김만덕의 후손에게 써 준 편액 문구입니다.

김만덕 가문의 6대 손인 김균(金均, 79) 선생이 2010년 (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 진본 편액을 기증하여 김만덕기념관에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를 통해서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길 바라는 제호입니다.

표지설명

김만덕 표준영정과 김만덕기념관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늦은 오후 비가 개이며 구름사이로 노을이 기념관을 비추고 있습니다.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해를 보내고 2017년 丁酉年을 맞이하며 구름이 걷히고 은혜의 빛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발행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발행인 김만덕기념관 관장 김상훈

발행일 2016년 12월 22일 창간호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창간호

恩光衍世

은 광 연 세

12

2016

『恩光衍世』 - 김만덕기념관 첫 소식지 창간

2015년 5월 29일에 김만덕기념관이 개관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관장에 취임하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저는 제주도민과 함께 어우러지고 제주의 문화·예술·나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김만덕기념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획전시, 나눔특강, 2015송년자선음악회, 학술세미나, 공모전, 답사, 체험, 나눔 큰 잔치 등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부해주신 소중한 쌀과 기부금을 모아 지난 1여 년 동안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을 여러 어려운 이웃과 시설 그리고 재일제주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누고자하는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恩光衍世』 - 김만덕기념관 첫 소식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김만덕기념관의 발자취와 함께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기증 및 기탁 내용과 사진을 중심으로 꾸몄습니다.

저희 김만덕기념관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이번 첫 소식지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하고 소통하는 김만덕기념관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새롭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관장 김 상 훈

送萬德還耽羅

萬德瀛洲之奇女
六十顏如四十許
千金糴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禦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啣肯賜飛驒
千里光輝動江關
登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電喧逝鵠舉
長留高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清臺安足數



만덕, 탐라로 보내며

만덕은 뛰어난 제주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네
 귀한 돈 내어 쌀 사서 백성 구제하고
 한 번 바다 건너 임금님 뵈었네
 오직 소원은 금강산 유람
 금강산은 동북쪽 연무에 싸여있네
 임금님 날랜 역마 내리시니
 천 리 넘어 빛 광채 관동에 진동했네
 높이 올라 굽어보며 마음 눈 크게 열고
 표현히 손 저으며 바다로 돌아가네
 탐라는 고·부·양 삼성(三聖) 이래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 구경했네
 우레 같이 왔다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기풍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리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 드날리니
 옛 여회청대를 어찌 부러워하리

금대시문초(錦帶詩文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의 시문집 '금대시문초(錦帶詩文鈔)'에 실린 시. 이가환이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제주도로 돌아가는 의녀반수(醫女班首) 만덕(萬德)에게 준 증별시입니다. 시를 짓게 된 사연을 소인(小引)으로 제시하였으며, 제목은 <탐라로 돌아가는 만덕을 보내며(送萬德還耽羅)>입니다.

이가환은 성호 이익(星湖 李瀾)의 종손(從孫)이며 이승훈(李承薰, 한국 천주교회 첫영세자)의 외숙(外叔)입니다. 김만덕의 금강산 유람 4년 후 1799년 정조와 채제공의 서거, 1801년 천주교 신유박해 때 이승훈, 홍낙민(洪樂敏), 정약용(丁若鏞) 등과 함께 서학의 괴수라는 혐의로 투옥되어 그 해 4월 8일(음 2월 26일)에 60세로 옥사하였습니다. 이가환은 시를 통해 이승에서 마지막을 예견한듯 의로운 일을 해낸 만덕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례 CONTENTS

2016. 12 창간호



발간사 | 3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

서시 | 4

만덕, 탐라로 보내며 - 이가환

창간 축하 메시지 | 7

제주특별도 원희룡 도시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창 공동대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승화 회장

커버스토리 | 11

김만덕기념관
김만덕 기록 유물

제주문화 답사 | 21

김만덕기념관 - 객주 - 모충사 - 사라봉 - 화북포구

나눔의 삶을 따라 | 29

자녀와 읽는 김만덕 전기

김만덕기념관 행사 | 41

주요행사·기획전·학술세미나·특강·대관행사

만덕심판 | 72

김만덕수상자회 진춘자 회장

김만덕기념관 방문 및 나눔 | 75

언론에 보도된 김만덕기념관 | 95

김만덕기념관 소식지인 '恩光衍世' 창간을 축하합니다.



200여 년 전 전 재산을 팔아 굶주림에 허덕이던 제주도민을 구휼했던 김만덕의 나눔 정신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은 오늘의 제주를 있게 한 소중한 가치이며 내일을 열어갈 시대정신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이런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는 '나눔의 성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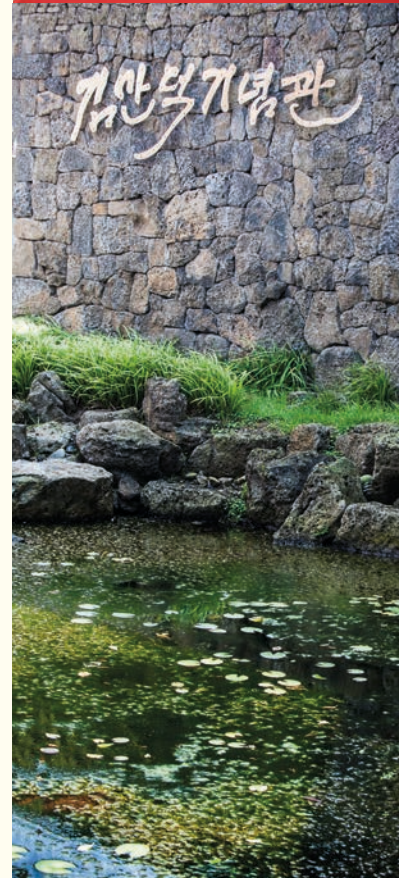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여 꾸준히 나눔살을 기탁받고 있을뿐 아니라 봉사와 문화·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나눔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만덕기념관 소식지가 창간됨에 따라 김만덕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은혜의 빛이 더욱 널리 확산되길 기대됩니다.

『恩光衍世』 창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하는 기쁨과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전하는 따뜻한 매체로 성장해나가길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축 사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 창간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로운 빛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다’라는 글로 의인 김만덕의 업적을 높이 기렸습니다.

그리고 200년도 더 지난 지금, 의인 김만덕의 선행이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으로 승화되어 다시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이 발행하는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가 그 다리입니다.

이처럼 의인 김만덕의 나눔을 세상에 퍼뜨려 줄 은광연세(恩光衍世)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횃수를 거듭하면서 의인 김만덕의 불꽃같은 삶과 정신이 각박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소식지를 창간해 주신 김상훈 관장님과 김만덕 기념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 김만덕은 200여 년 전 제주에 흑심한 흉년으로 많은 도민들이 굶어죽게 될 지경에 이르자 천금으로 쌀을 사다가 굶주린 도민을 구했습니다.

또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김만덕 정신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정신적 지주이자 우리 사회의 근본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돈을 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의인 김만덕이 내려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로 인해 의인 김만덕의 나눔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승화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정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 관 홍



축 사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 창간을 축하합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어렸을 때부터 “만덕할망 아니여심 우린 나지도 못 했쎄.”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전설이나 신화처럼 전해 내려오던 ‘만덕할망’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표상 ‘김만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김만덕의 나눔이 실려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김만덕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번푸만덕중학교와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익히고 있습니다. 위험한 등하교길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아프리카 남수단 어린이들은 ‘김만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두의 진심과 노력으로 김만덕기념관이 개관해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계승, 실천하는 나눔공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 제주의 사람·자연·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관광자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는 김만덕기념관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기쁨, 나눔과 봉사의 소식이 가득찬, 김만덕이 몸소 보여준 사랑이 넘치는 매체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김만덕기념관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훈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은광연세(恩光衍世)’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양 원 찬



축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승화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역시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태풍 ‘차바’로 인해 상처 입은 도민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며 고통 받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가입과 G20(주요 20개국)에 의장국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외형은 선진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 한 달에 5만원 남짓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 간 빈부격차가 커지고, 소득격차에 의한 괴리감 증가,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 격차와 피해 의식 확대로 공동체 의식마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의 실종은 곧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 막히고 각박하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지난 2015년 5월, 전세계 최초로 ‘김만덕기념관’이라는 나눔문화 기념관이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잇고 나눔으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김만덕 기념관이 우리 곁에 있어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마음과 마음을 담아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하니 거듭 축하드립니다.

‘김만덕 기념관’은 그동안 김만덕의 뜻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 도내외의 기부자 등과 함께 나눔살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소식지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지를 펼치면 더욱 더 훈훈하고 온정이 넘치는 사회를 위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소식지가 마음이 굽주려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 승 화

세계 최초 나눔문화 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은혜의 빛이 온세상에 퍼지다



김만덕기념관은 200여 년 전 제주도의 계속된 흉년으로 굶주림이 극심할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 양곡을 배로 실어와 많은 생명을 구해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삶을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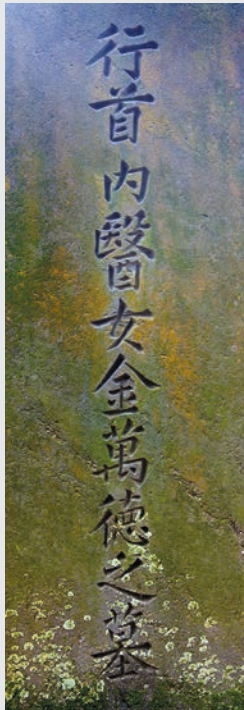
제주를 대표하는 인물인 김만덕의 생애를 소개하고 단순히 역사적인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에서 벗어나 만덕의 불우한 환경과 여성을 억압하던 한계에 굽히지 않고 불합리한 규범과 맞서 새로운 것에 과감히 개척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천한 도전 정신, 모든 재산을 내어 굶주린 수많은 사람을 살린 나눔 정신을 체험하고 다짐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덕은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늘 검소하게 살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물론 전국 각지 방문객의 참여로 모여진 '만덕 사랑의 쌀' 나눔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층 상설전시관 은혜의 빛을 만나다

의인 김만덕 만덕의 생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의 생애 : 김만덕의 생애와 영정 전시 • 만덕을 이야기한 사람들 : 김만덕과 동시대에 살았던 정조, 채제공 등이 남긴 이야기 • 만덕아카이브 : 후세들이 남긴 기록자료 전시
만덕정신, 도전 제주의 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인환원 : 만덕의 어린 시절과 부모를 잃고 행수기생이 되었던 이야기 • 물산객주 : 양인신분 회복 후 거상이 될 수 있었던 삶 이야기
만덕정신, 나눔 만덕의 숭고한 나눔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민구휼 : 계속된 흉년으로 힘들던 제주기민들을 살려낸 이야기 • 구원의 여인 (종합영상관) : 만덕의 도전과 나눔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소개
은혜로운 빛, 김만덕 의녀반수, 금강산 유람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녀반수 : 의녀반수의 벼슬을 받고 정조대왕을 알현한 후 금강산 유람 이야기 • 제주백성의 할망 : 금강산 유람 후 제주도로 돌아와 나눔의 삶을 산 이야기
빛을 잇는 사람들 나눔을 실천한 세상을 밝힌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을 밝힌 사람들 : 김만덕처럼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의 활동 • 만덕 빛을 잇는 사람들 :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소개
만덕객주터, 산지천 옛모습 산지천의 과거와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덕 객주터로 추정되는 산지천의 옛모습 사진과 현재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김만덕의 생애

- 출생 김응렬의 3남매 중 막내이자 외딸
- 12세 부모 사망, 기녀에게 맡겨짐(기녀의 수양딸)
봄부터 유행병 / 기근
- 13세 교방(기녀 관장 기관)살이
잔심부름, 기녀수업
- 18세 기녀로 등록됨
- 20세 행수기녀가 됨(추정)
- 24세 양인 신분 회복
물산객주 운영
- 56세 갑인 흉년 제주 인구 18,000여 명 감소
- 57세 굶주린 제주 백성 구제(양곡 구입)
- 58세 한양 도착, 정조 만남
'의녀반수' 벼슬 받음
- 59세 금강산 유람
- 74세 별세. 구으니무루에 안장

만덕정신, 도전

불우한 환경과 여성을 억압하던 시대의 한계에 굽히지 않고 불합리한 규범과 맞서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고 개척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김만덕. 그 삶의 원동력이었던 도전 정신을 재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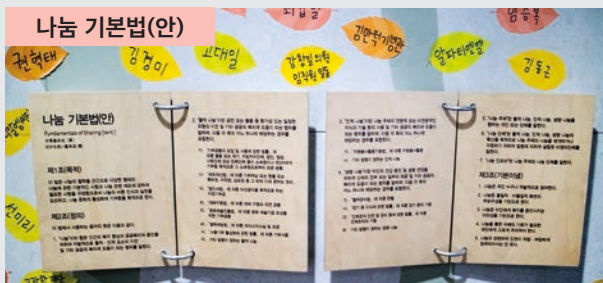
만덕정신, 나눔

만덕은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늘 검소하게 살면서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한다'는 생활철학을 실천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갑인년 흉년으로 제주도민이 굶어 죽어나가는 상황에 이르고, 더욱이 조정의 구휼미를 실은 배가 침몰하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자 만덕은 굶주린 이웃을 위해 기꺼이 모든 재산을 내놓아 조선시대 처음으로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여성으로 기록됩니다.



2층 나눔실천관 은혜의 빛을 만나다

빛가득 폭낭 : 나눔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 첫걸음 : 나눔에 대한 정의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 과거, 현재 우리의 나눔 :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오는 나눔문화 및 현황 소개
빛자람 마을 : 나눔 실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나눔 :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등 인적나눔의 의미 전달 • 물적나눔 : 작지만 큰 100원의 가치를 컨셉으로 현금 및 물품기부에 대한 방법 전달 • 생명나눔 : 헌혈,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의 가치 전달
빛누리 광장 : 나눔다짐과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 체험 : 나의 나눔지수, 나눔약속타임캡슐,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사전 체험 • 나도, 김만덕! : 쌀을 모티브로 기부체험 및 은광연세 탁본체험
빛이음 마을 : 나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행복교실 : 나눔교육프로그램운영, 자율적 나눔체험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 • 참 쉬운 나눔 : 나눔플랫폼과 스마트헌혈, 수화체험 등 쉬운 기부경험



나눔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 돈, 재능, 마음, 힘(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에 자선이나 박애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나눔의 법칙

나눔의 법칙 1

가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나눔의 법칙 2

나누는 사람이 성공한다.

나눔의 법칙 3

나눔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힘이다.

나눔의 법칙 4

나눔도 습관이다.

나눔의 법칙 5

내 재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눔의 법칙 6

나눔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나눔의 법칙 7

나눔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수눔

제주도 특유의 미풍양속으로 육지의 품앗이와 비슷합니다. 대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이을 때, 농번기에 검질(검)을 맬 때,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끌어낼 때, 방앗돌을 굴릴 때, 밭을 밟아줄 때, 마을주민의 장사를 지낼 때, 마을 길을 닦을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한 마을 큰일이나 농사일에 그때그때 힘을 모았습니다.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일시에 집단이 형성되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돕습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모으는 원리는 나중에는 마을 공동체의 일을 해결하는 사회적 원리가 되어 정착됩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을 이기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주 전통의 나눔 방식입니다.

어떤 나눔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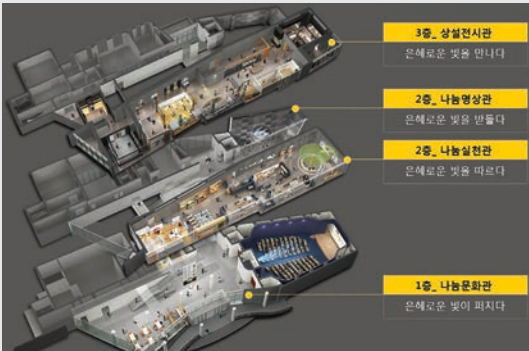
1. 재산 나눔(물적 나눔): 돈 또는 물품 등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일정한 유형을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공공의 복지를 위해 나누어주는 것으로 금전, 기부 채납, 물품 등이 있습니다(물품이나 재산).
2. 일손 나눔(인적 나눔): 나눔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지닌 지식과 기술 등을 도움이 필요한 곳이나 공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적 나눔은 자원봉사입니다.
3. 생명 나눔: 자신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생명 연장을 위해 또는 공공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곳에 제공하는 것으로 혈액 기증, 장기 기증, 인체 기증 등이 있습니다.



2층 나눔명상관 은혜로운 빛을 받는다

은혜의 빛 : 은광연세

- 은광연세가 빛으로 새어 나오는 원형조형물 아래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체험



1층 나눔문화관 은혜의 빛이 퍼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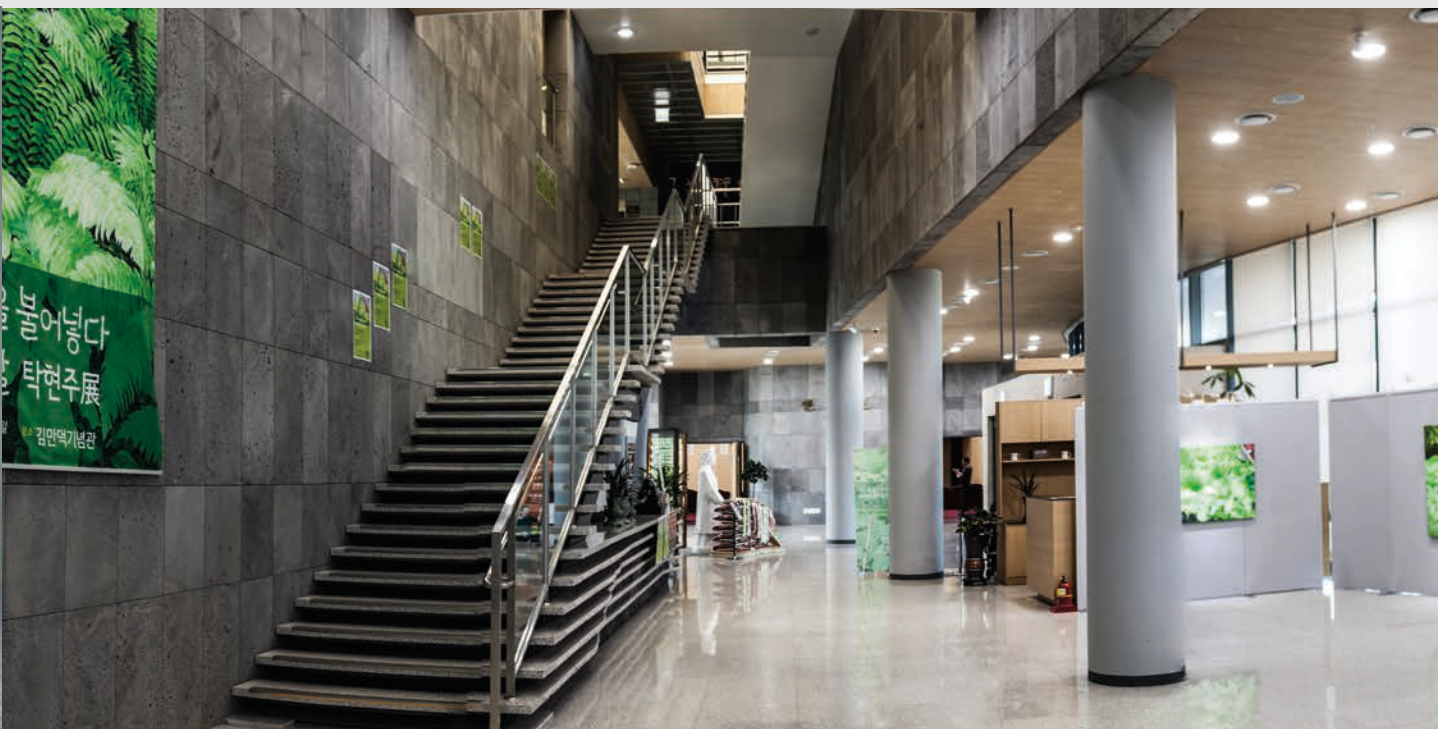
만덕홀 : 종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 : 관람객을 위한 안내의 공간 • 은광연세, 김만덕 : 기념비적 공간으로 김만덕 전신상 관람
만덕홀 :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강당 : 200명 수용 좌석, 행사 및 강연 • 김만덕에 대한 영상자료 관람(단체 사전 신청)
작은도서관 : 열린 나눔 커뮤니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나눔커뮤니티룸 : 나눔관련단체, 동호회 등 모임 및 재능기부를 지원하는 장소 • 작은도서관 : 제주·여성 관련 자료 열람

문화 예술로 만나는 김만덕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현대 여성 삶의 본보기며 이 시대에 존경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 리더상으로 김만덕의 생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와 탁월한 능력으로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김만덕의 삶을 소재로 그의 정신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작품들이 제작되었습니다.

김만덕기념관에서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사회문화 증진을 위해 각종 기획전 및 대관 행사,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나눔 체험, 청소년 청년을 위한 만덕봉사단, 제주문화 역사 답사, 환경, 역사,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나눔강좌 등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덕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이며 관람료는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휴관일은 매월 1, 3주 월요일(단, 해당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입니다. 시설이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andukmuseum.or.kr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주요 유물



은광연세(恩光衍世)

98.0 × 31.0

김만덕 6대손 김균 기증.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 는 뜻이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추사가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제주 사람들로 부터 전해 듣기를 대기근에 처한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 놓은 의인 김만덕이 세상 떠난 지 30년이 넘도록 칭송받자, 그의 선행을 기려 3대손인 김종주에게 써 줬다고 한다. 편액에 쓰여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광衍世-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金剛山 攄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번암집(樊巖集)

21.2 × 32.0

『번암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채제공(蔡濟恭)의 시문집으로 60권 27책이다. 「만덕전」은 『번암집(樊巖集)』 권55 전(傳)에 실려 전하며, 권19 에서는 크게 만덕을 노래하고 있는 칠언율시의 전반부와 만덕의 행적을 간략하게 서술한 후반부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다.



운곡집(雲谷集)

21.0 × 31.6

『운곡선생문집(雲谷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학자 이희발(李羲發)의 시문집으로 1899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만덕전」은 권8 전(傳)에 수록되어 있으며 제주도 기생 출신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휼한 만덕에 대하여 교명을 받들어 썼다고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다른 「만덕전」들과 그 내용이 비슷하나 도입 부분에서 탐라에 대한 지리·물산(物産)·민풍(民風)·토속(土俗)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색다르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6.8 × 26.3

『여유당전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의 저술을 총 정리한 문집이다. 이 중 만덕의 중동(重瞳)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기록한 「중동변」은 『여유당전서』 권12의 '변(辨)'에 수록되었다. 또한 『여유당전서』 권14의 '제(題)'에 수록된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에서는 만덕에게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식(故寔)

20.4 × 32.5

『고식』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희락(金熙洛)의 시문집으로 5권 3 책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만덕 이야기는 권 4의 전에 「봉교제진만덕전(奉敎製進 萬德傳)」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추재집(秋齋集)

17.5 × 26.2

『추재집』은 조선 후기 여항시인(閿巷詩人) 조수삼(趙秀三)의 8권 4 책의 시문집이다. 이 작품은 조수삼의 『추재집』 권 7의 『추재기이』 중 ‘시(詩)’ 편에 수록되었다. 전반부의 만덕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는 극도로 축약된 형태인데, 특이한 것은 만덕의 눈동자를 중동(重瞳, 쌍커풀)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후반부의 한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서 채제공의 「만덕전」에도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제주문화 답사

김만덕기념관 - 객주 - 모충사 - 사라봉 - 화북포구



김만덕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2015년 5월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여 이 땅의 대표적 의인의 표상이 된 김만덕의 삶과 그 정신을 기리고 본받아 널리 전파하는 곳입니다. 김만덕의 근점절약정신, 나눔정신, 개척 개혁 개방정신과 김만덕의 리더십과 경영철학을 배우고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 문화전시관입니다.

김만덕기념관이 위치한 제주시 건입동의 산지천 일대는 김만덕의 삶이 살아숨쉬는 제주의 원도심으로 조선시대의 객주를 재현 김만덕 객주(임항로 68), 기념관 뒤쪽 금산수원지 생태원, 제주지방 기상청, 동문재래시장 등이 있습니다.

산지천 김만덕기념관 - 사라봉 일대 - 별도봉 - 화북포구까지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돌아보는 길을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제주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별도봉

사라봉

← 화북포구

김만덕객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68



김만덕기념관 인근 제주시 건입동 1297 일대 2,146㎡에 전체 면적 390㎡ 규모의 김만덕의 옛 객주터로 고증된 초가 8동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김만덕 객주를 200년만에 재현하였습니다.

만덕고가 안거리, 박거리, 정지간, 창고 등 김만덕이 살던 주택을 재현한 초가 4개동은 농기구, 모형(생활용품, 사람·소·말 등), 병풍, 전통밥상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3개동은 객주 안거리, 박거리, 주막 등 객주시설을 재현했으며 건입동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 1개동은 경비동으로 사용되고 우물, 통시(화장실), 장독대, 우영(덧밭) 등 당시를 연상할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김만덕기념관과 산지포구



모충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397-4



사라봉 남쪽 기슭은 있는 모충사는 제주 주민의 성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김만덕 구휼의녀탑과 묘소,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 의병항쟁 기념탑을 한 곳에 모신 곳입니다.

모충사에서는 매년 탐라문화제를 시작할 때 김만덕 할머니를 기리는 제를 봉행하고 세계적으로 봉사, 경제 분야에서 공헌한 여성을 대상으로 만덕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구 김만덕기념관은 전시 유물을 현 김만덕기념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구 김만덕기념관

↓ 김만덕묘탑



김만덕묘비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4호. 모충사 경내

김만덕 묘비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미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우려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목사가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화려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특명으로 고을이 이어가며 돌보게 하고 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봉을 두루 유람하고 서울로 돌아오니 이로 인하여 공경대부 모두가 글과 전기를 써주었다.

비록 옛적에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방불케하였고 눈은쌍겹눈으로 환하고 맑았다.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양손 시체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영조 15년에 낳고 순조 12년 10월 22일에 죽어 가으니마루에 장사지냈고 1812년(순조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 (김만덕 자료총서1. 윤치부 327쪽 참조)



김만덕은 영조 15년(1739)에 태어나서 순조12년(1812) 10월 12일에 74세의 나이로 타계하여 제주 성안이 한눈에 보이는 구이니마루 언덕에 안장하였습니다.

만덕묘는 제주시가지 확장으로 이장을 추진, 1977년 유해를 탑에 안장하고 옛 묘에 있던 묘비와 상석, 동자석, 망주석 등도 묘탑 맞은편에 이전하였습니다.



사라봉-별도봉

김만덕의 얼을 기리며 걷는 길

김만덕기념관을 출발하여 산지천을 따라 김만덕 객주, 제주항을 거쳐 사라봉과 별도봉으로 오르면 바다와 제주시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옛부터 제주성과 화북포구, 조천포구를 왕래하던 길이었고, 제주올레 18코스, 불교 자비의 길, 천주교 신축화해의 길이 모두 이곳과 모충사를 거쳐 갑니다. 이 길을 걸으며 조선시대, 근현대사의 흔적을 접하며 어린 김만덕이 언덕에 올라 온갖 어려움에도 더 멀리 더 높이 날고자 했던 꿈을 꾸고, 굶주린 이를 살릴 배를 기다리며 가슴조이고, 제주에 돌아온 지 4년만에 정조와 아버지 같은 채제공의 죽음, 같은 꿈을 가진 친구 이가환이 옥사했다는 비보에 서울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면서 죽어서도 제주성과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머물고 싶지 않았는지 생각해봅니다.





화북포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일원

화북포구는 건입동 산지향이 축조되기 전에는 전남 강진과 영암, 해남 등과 주를 잇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이 포구를 통해 쌀과 소금 등 생활필수품이 들어왔으며, 제주에 부임하는 관리와 유배인이 들어왔습니다. 화북포구는 여러 포구 가운데 제주성(城)과 가까운 포구로, 17세기 내려진 출륙금지령 등으로 이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륙금지령은 조선시대 제주의 피역자들이 왕왕 배를 타고 육지로 떠나 돌아오지 않자, 제주사람들의 육지출입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출륙금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육지로 가는 포구는 별도(화북)와 조천 두 포구로 제한되었고, 육지로 나가는 자는 제주목에서 내준 출선기를 받고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화북에서 제주성 안까지는 10리로 3~4km입니다. 화북포구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북진을 통해 남문을 거쳐 오현고등학교 방향으로 난 큰 길(삼사석로)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북진 북서쪽에 있는 화북비석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주에 부임한 관리나 사신 등은 대부분 큰 길을 이용했고, 일반인은 비석거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은 오현고 맞은 편 동제원 일대에서 만납니다. 그 후 제주대학교교육대학, 국립제주박물관을 거쳐, 국립제주박물관 앞 6호 광장 남서쪽으로 난 큰 길을 따라 조선시대 제주성 밖 첫 마을인 구으니무루에 입성합니다. 그 후 제주성 동문을 거쳐 동문시장을 거쳐 제주목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김정 제주목사 봉공비



해신사

곤을동 4·3유적지에서 바라본 화북포구



자녀와 읽는 김만덕스토리

나눔의 삶을 따라

글 양진건. 김진철 그림 정지란



나눔의 빛을 밝히는 김만덕 기념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그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의 삶은 도전과 나눔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의로운 삶은 추사 김정희가 남긴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글씨에 어려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은 도전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을 기리고 그녀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역경을 딛고 최고의 상인이 되어 나눔의 표상으로 성장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김만덕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보여준 그녀의 은혜로운 빛을 따라가 봅시다.



(1) 함께 느끼는 아픔 **부모와의 사별**

김만덕은 1739년(영조 15년) 제주의 평범한 양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여느 소녀들처럼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은 아무런 예고 없이 만덕을 찾아왔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만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맙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나이에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만 것입니다. 남겨진 형제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만덕은 어린 나이에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게 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만덕에게 부모와 사별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훗날 극심한 굶주림으로 부모

를 잃고 남겨진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만덕은 절망적이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가족과의 이별을 몸소 경험했기에 가족의 품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헌신한 마더 테레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먼저 서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과 청각, 언어 장애를 함께 갖고 있던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설리번 선생님은 자신도 병 때문에 어린 시절 한동안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헬렌 켈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도울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덕분에 헬렌 켈러는 장애를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만덕의 아름다운 선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재산을 선뜻 내놓았을 것입니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 만 명의 어린이가 방학에도 급식이 있어야 하고, 노인들의 절반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 또는 희귀병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시작일 것입니다.

(2) 가장 낮은 곳에서 내민 도움의 손길 **기녀의 팔이 된 만덕**

한 순간에 부모를 잃은 만덕은 몸을 누일 곳도 마음을 기댈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행히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찾아갔지만, 그녀만은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때 만덕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한 기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귀하고 천함이 있어 양반과 중인, 상민, 천인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중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는데 노비나 백정, 기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덕을 벼

랑의 끝에서 구해준 이가 천인 신분인 기녀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천인은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남성중심의 사회여서 여자는 함부로 나설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기녀가 갈 곳이 없었던 자신을 도와주었으니 만덕에게는 누구보다도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덕이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수렁에서 구해준 기녀의 영향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여자라는 신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의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선 것, 만덕의 행동이 특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도 남을 도와주는 숨어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최귀동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남의 밥을 얻어먹는 생활을 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걸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에 우리는 더욱 감동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보듬을 줄 아는 숭고한 정신이 깊은 감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것을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즈 마을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의 병을 치료한 한국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의



사례는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자립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기부로 만들어지는 잡지 <빅이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이 음성을 기부하는 소리책 등의 사례들은, 작은 재능의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능 기부는 만덕의 정신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용기 있는 도전 **천인에서 양인으로**

천인의 자식이면 자연스럽게 천인 신분이 되었던 조선시대 신분 제도 때문에, 만덕 역시 천인 신분으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기녀의 딸은 대를 이어 기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덕 역시 기녀의 딸이라는 이유로 18세가 되자 당시의 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엄격한 신분 제도 아래에서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홍길동전」에서 서자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신분의 차별이 뿌리 깊었습니다. 죄를 지어 신분이 내려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습니다. 노비들은 양반들 사이에서 매매 대상이 되거나 관아에 속한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기녀가 되어야 했던 만덕에게 기녀

의 삶은 벗어나야 할 굴레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덕은 자신의 신분을 되돌려달라며 수차례 관아를 찾아가 호소를 했습니다. 보통 만덕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체념하고 기녀 생활에 적응해 살기 마련입니다. 신분제가 공고했던 조선시대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녀의 삶을 유지했다면 부잣집 양반과 혼인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덕은 다른 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해 만덕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양인의 신분을 되찾기에 이릅니다.

만덕과 같이 노비의 신분을 극복한 사례로 장영실을 들 수 있습니다. 장영실은 노비로 태어났지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벼슬을 지냈습니다. 장영실이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과학적 능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 세종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덕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천인에서 양인으로서의 신분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그래서 만덕의 신분 회복은 더욱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만덕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국내 경영인 어록 중 1위로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봐어?”를 뽑은 것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덕이 보여준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리





에게 귀감이 됩니다. 만약 만덕이 기녀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했다면 훗날 의인으로서의 만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 있는 도전이 있었기에 그녀는 양인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는 자신의 꿈을 펼치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4)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 **상인의 글**

만덕은 우여곡절 끝에 양인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날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주의 여성들은 대부분 바다를 터전으로 활동하는 해녀가 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바다와 친숙해지고, 선배 해녀들로부터 물질 기술을 이어받아 해녀로서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한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녀의 경험은 평범한 제주 여성들의 삶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덕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덕은 건입포구에

객주를 차리고 상인으로서 또 다른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만덕은 상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수공업과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곳곳에 시장이 들어서면서 물건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여러 지역의 특산물들이 유통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물건을 팔아 팔았던 객주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객주의 중요성이 더했습니다. 만덕은 그 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만덕은 물산객주를 운영하면서 위탁판매를 비롯해 숙박, 금융, 도매, 창고, 운반 등의 업무를 통해 상인으로서의 능력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고,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은 디지털 음악 생태계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아이폰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시대를 선도하는 신개념의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재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만덕 역시 상공업이 발달하는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고, 스스로 상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의 여성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제주 제일의 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5) 소통으로 이룬 네트워크 **객주의 성장**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던 제주는 섬에서 나지 않는 물품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쌀이었습니다. 제주의 토양은 물이 잘 빠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논농사를 짓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쌀은 값비싼 물품이었고, 쌀로 지은 밥은 중요한 손님이 방문할 때나 제삿날이 되어서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주에서만 나는 물건들은 육지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주는 농사를 짓기가 힘든 대신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미역의 경우 당시 제주에서만 채취될 정도로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돈 대신에 미역이 화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이래 많은 말을 길렀던 제주는 말총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말총은 양반들이 상투를 틀 때 사용했던 망건을 만드는 재료였기에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양반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의 특산품들은 육지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만덕은 제주의 물품을 육지에 팔고, 육지의 물건을 제주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객주를 성장시켰습니다. 객주의 위치를 포구와 가까운 곳으로 정한 것도 많은 상인과 물건들이 드나드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만덕은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에서 관아의 물품까지 공급하면서 점점 성장하였고, 이후 객주 소속의 배를 갖춘 제주를 대표하는 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만덕의 객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덕의 객주는 오늘날의 대형마트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쌀을,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상인에게 중요한 능력은 남는 물건을 싼 값에 구매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과 다양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싼 값에 살 수 있는지, 언제 팔아야 이익이 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숙식을 해결했던 만덕의 객주는 다양한 지역의 정보가 모이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상인들과의 소통으로 얻은 정보들은 제주를 떠나지 않더라도 물건의 시세를 한





눈에 파악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만덕의 활발한 소통은 제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나라에서 보낸 구휼미를 실은 배가 난파당하자 만덕은 그동안 쌓은 자신의 네트워크로 재빨리 쌀을 구해 제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만덕의 객주는 마치 오늘날 온라인 소통의 대명사인 SNS와 같은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덕 객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만이 아닌 활발한 소통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신뢰를 얻는 비결 **믿음으로 거상이 되다**

만덕은 자신의 객주를 제주 최고의 객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제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상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만덕이 상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장사 수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장사에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가들의 목표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기업 이익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만덕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인의 윤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싸게, 그러나 많이 판다”, “알맞은 가격으로 사

고판다”, “정직한 믿음을 판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 아래 조금의 이윤만 남기고 많이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만약 만덕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허생전>에서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독점하여 폭리를 취한 것처럼 탐욕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 경우 나 혼자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덕은 정직을 앞세워 장사를 했습니다. 제주 사람들과 공존을 위해 노력한 만덕의 상업술은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만덕의 장사 원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했던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과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흥년에는 땅을 사지 말고, 재산을 만 석 이상 지니지 말며,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최씨 가문의 가훈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덕 역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제주해녀들의 모습과



도 닮아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보여주는 불턱의 문화, 약자를 배려하는 할망바당 등에서 보이는 해녀들의 공동체 정신은 만덕이 상업을 통해서 추구했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마음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7) 협동의 정신으로 극복한 어려움 **지독한 갑인년 흉년**

“산 높고 깊으니 물의 재앙이요, 돌 많고 땅이 척박하니 가뭄의 재앙이요, 사방이 큰 바다이니 바람이 재앙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주는 척박한 환경을 갖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땅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니 농사를 짓기 힘들었고, 여름이면 강타하는 태풍은 자연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만덕이 상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제주에는 여러 해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주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어사로 파견된 심낙수가 올린 장계에는 당시 긴급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쌀로 쳐서 2만 섬을 배에 실어 보내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머지않아 다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그나마 나라에서 급히 보낸 구휼미 덕분에 제주 사람들은 겨우겨우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인년(1794년)의 흉년은 제주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미 몇 해 동안의 흉년에 지치고 쇠약해진 상황에서 갑인년 흉년은 제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정조가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듣지 못할” 재해라고 말했고, 채제공이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이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갑인년 흉년은 처참했고, 제주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갑인년 흉년은 제주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시기를 서로 도우며 이겨냈습니다. 만덕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선뜻 내놓으면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나만 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모른 척했다면 제주 사람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MF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금모으기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협동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된 것처럼, 갑인년의 흉년을 이겨내기 위한 자발적 나눔에서 제주 사람들의 협동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8) 나눔으로 보여준 선행 **제주 사람들을 구하다**

지독한 흉년에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이 때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쌀 300 석을 구입한 후 제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채제공은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고 만덕의 선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덕 외에도 현감을 지낸 고한록이 300석, 장교 홍삼필과 유학 양성범이 각각 100 석씩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벼슬을 지냈거나 지역의 명망가였던 것에 반해 만덕은 천인 출신에 여성의 신분임에도 많은 재산을 쾌척했습니다.

만덕이 기부한 쌀로 제주도민 전체를 열흘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덕이 구해온 쌀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들이 1백 석을 자원 납부한 것은 육지의 1천 포와 맞먹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서 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해온 쌀로 죽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만덕의 정성이 담긴 죽 한 그릇은 비록 귀한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고생해서 번 돈을 조건 없이 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덕도

자신의 부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객주에 다녀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덕은 자신이 억척스럽게 번 돈을 제주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만덕처럼 많은 부를 쌓은 재벌들은 사회 환원을 통해 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던 사업가인 록펠러와 카네기는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병원과 교회, 학교 등을 세웠고, 카네기는 많은 도서관을 지어 기증하면서 자선사업과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매년 수백 억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세계적인 재벌로 올라선 마크 저커버그 역시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기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기부에 나선 이유는 경제적인 풍요로움보다 나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욱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만덕이 실천한 나눔 또한 상인으로서는 쌓아올린 재산보다 나눔을 통해 쌓아올린 보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차별의 벽을 넘어 **만덕의 두 가지 소원**

만덕의 선행은 바다를 건너 궁궐에 있는 정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조는 만덕의 선행을 칭찬하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명을 내립니다. 만덕이 원한 것은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아닌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왕이 사는 궁궐과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을 둘러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주를 떠나 여행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제주에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 사람들이 허락 없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혹한 세금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제주 사람들이 섬을 떠나버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이탈을 강제로 막은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더구나 여자들은 육지 사람과 혼인까지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넓은 바다 속에서는 한없이 자유롭던 제주의 여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덕의 소원은 참으로 당돌한 요구였습니다. 제주 사람이,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육지의 땅을 밟는다는 것은 지엄한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만덕의 의로운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만덕은 왕의 허락을 받고 금기를 뛰어넘어 육지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머무르는 궁궐은 아무나 들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일개 평민이 궁궐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을 만나는 것은 벼슬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덕에게는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명예직이 내려집니다. 만덕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몸으로 왕을 알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남자들도 평생에 한 번 가기 힘들다는 금강산까지 유람하면서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초 흑인 선수인 재키 로빈슨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차별을 받았지만, 곳곳이 이겨내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이후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메이저리그에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재키 로빈슨이 처음 메이저리그에 섰던 4월 15일이 되면 그를 기리며 그의 번호였던 42번을 달고 뛰니다. 그는 차별의 벽을 허문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덕의 행동도 바로 사회적 차별을 허무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주 사람이라는 차별, 여성이라는 차별을 공식적으로 깨뜨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라서 안 돼, 제주 사람이어서 안 돼, 평범한 사람이어서 안 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기록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10)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만덕은 1812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선사업에 힘을 쏟은 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만덕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신하들에게 만덕에 대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재상이었던 채제공을 비롯해 박제가, 정약용, 이가환 등 유명한 학자들이 만덕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한 명의 여인을 위해 당대의 대가들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만덕이 보여준 삶이 특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에 유배를 온 추사 김정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전해지는 만덕의 선행을 듣고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뜻의 <은광연세 恩光衍世>라는 글씨를 후손에게 써 주었습니다. 추사의 글씨처럼 우리나라 변방의 섬, 제주에서 보여준 만덕의





선행은 학자들의 글을 통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정조가 만덕의 기록을 통해 남기고자 했던 것, 추사가 글씨에 담아 내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만덕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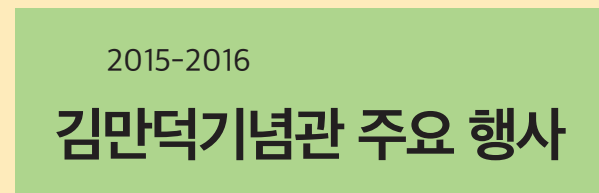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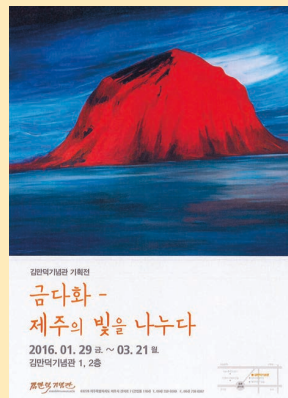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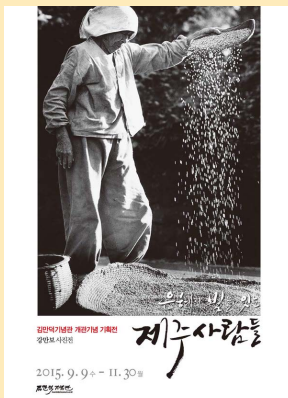
제주의 여성들은 만덕의 뒤를 이어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고수선 여사는 6.25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홍익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구호 활동을 펼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봉사는 과거 만덕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선 여사는 나눔과 도전을 실천하는 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김만덕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이웃 사랑을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김만덕상을 수여하면서 만덕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덕은 고아에서 기녀로, 다시 상인으로, 그리고 나눔의 표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김만덕은 죽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사라

지지 않고 우리 시대의 귀감이 되는 인물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옆에 누군가 갑인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덕과 같이 수백 석의 재산을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마음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만덕을 기리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김만덕의 일을 잇는 김만덕 기념사업회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도전과 나눔의 표상인 김만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김만덕에 대한 학술사업과 더불어 쌀 천 섬 쌓기, 만섬 쌓기 행사를 통해 의인 김만덕이 보여준 나눔의 삶의 가치를 알렸으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다양한 기부 활동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에 걸맞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 취임

2015년 4월 28일



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회 임원들과 기념촬영

2015년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사)김만덕기념사업회는 김만덕기념관 초대 관장에 김상훈씨를 공모를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취임인사에서 김 관장은 “김만덕기념관을 통해서 김만덕 할머니의 정신과 삶을 널리 알리고, 고귀한 사랑을 전파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쳐 김만덕기념관을 세계적인 나눔과 봉사의 중심센터로 만들겠다. 지난 30여년간 기업가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개관식

2015년 5월 29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개관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9번째),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6번째), 정운찬 전 국무총리(“ 10번째),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8번째)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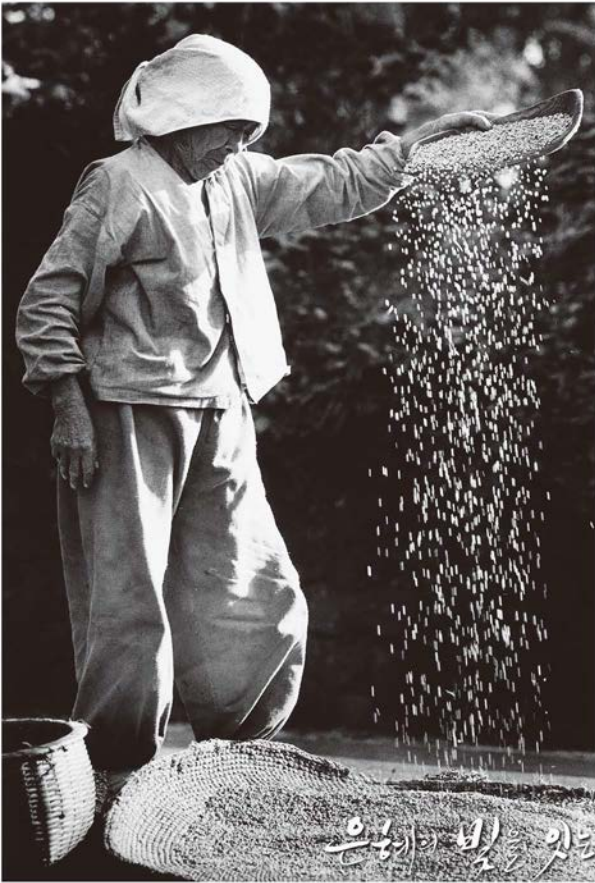
2015년 5월 29일 오전 11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등 400여 명의 도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만덕사업회 고두심 상임대표는 기념관 건립에 도움을 주신 고흥철(제주의 소리 대표), 조순여(제주도 여성정책과), 서광로, 고영숙(제주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은 제주도에서 2013년 153억원을 투입해 12월 31일 김만덕기념관을 착공했고, 1년 6개월만인 지난 3월2일 완공됐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은 부지면적 1977㎡, 건축연면적 2902.87㎡, 지상 3층 규모로 나눔교육관(1층), 기부센터 및 체험관(2층), 전시실(3층)로 구성됐습니다. 학습공간, 나눔과 베품 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개관식이 열리는 기념관 로비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쌀 2000kg이 가득 쌓여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쌀은 초대 김상훈 관장이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을 사양하자 대신 나눔쌀로 보내 준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김현 선생(김만덕 후손)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김상훈 관장이 고승화 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쌀을 전했고, 고 회장은 “뜻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개관기념 기획전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2015년 9월 9일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기획전
강만보 사진전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2015. 9. 9수 - 11. 30월

김만덕기념관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과 배려,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살아온 제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전으로 강만보 사진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온 제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근현대 제주지역의 생활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

2015년 9월 10일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5년 9월 10일 기념관 만덕홀에서 열렸습니다.

한양대 예종석 교수의 주제발표, 양영철 제주대 교수가 사회, 양

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유병택 품질재단 이사장,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강은희 아너소사이어터 회원, 여창수 KCTV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송년 자선 음악회

2015년 1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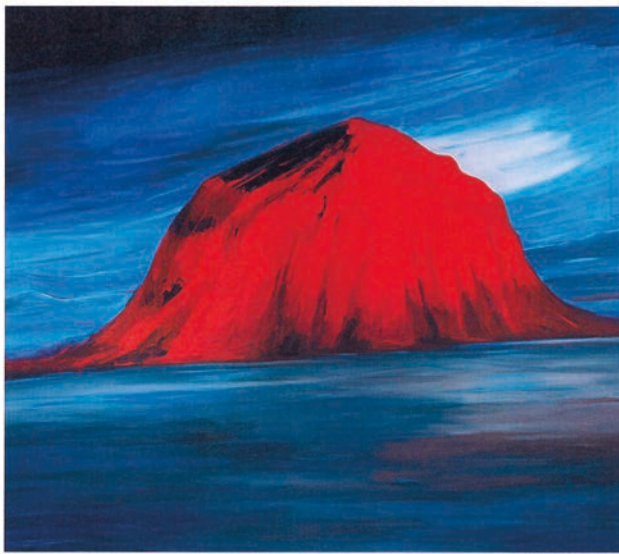
12월 20일 저녁 7시, 1200석이 모두 만석이 된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KCTV가 공동 주관한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초청 김만덕기념관 송년 자선 음악회가 감동과 열광속에 치러졌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행복을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마련된 음악회에서 벅찬 감동과 기쁨, 행복을 느끼며 때때로 흐르는 눈물을 남몰래 닦아내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전하며,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김만덕 기념관 기획전 '금다화, 제주의 빛을 나누다'

2015년 1월 29일 - 3월 21일



김만덕기념관 기획전

금다화 - 제주의 빛을 나누다

2016. 01. 29 금. ~ 03. 21 월.
김만덕기념관 1, 2층

김만덕기념관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동 7 (신대동 1164) T. 064-739-8000 F. 064-739-8007



김만덕 기념관 기획전 '금다화, 제주의 빛을 나누다' 기획전 오프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김만덕 구휼의 상징인 쌀과 밥을 담은 막사발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독창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마련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제주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미나 나눔특강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2016년 2월 27일



김만덕기념관의 나눔특강이 도민과 관광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덕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명 아나운서에서 이제는 여행가, 작가, 기업의 대표로 또 다른 꿈을 이루고 있는 손미나씨가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성공 레시피를 전했습니다.

손미나씨는 경험속에서 체득한 선택과 재치, 계획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달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남에게 조금이나마 빛이 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줄 길 바란다며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시백 나눔특강 - 조선후기의 주요왕들'

2016년 4월 23일



4월 23일(토) 김만덕기념관이 주최한 나눔특강 두번째 '박시백 나눔특강 - 조선후기의 주요왕들'이 도민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기념관은 하반기에 김만덕이 태어나 활동했던 영조-정조-순조의 시대상과 김만덕의 나눔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한 정조시대의 영의정 변암 채제공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제주에 숨을 불어넣다-제주꽃자왈

2016년 8월 9일 - 9월 18일



8월 9일 오후3시, 김만덕기념관 기획전 '제주에 숨을 불어넣다 - 제주꽃자왈 탁현주전' 전시 오프닝과 꽃자왈 애니메이션 '낭이' 상영, 양원찬박사(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의 특별강연 '세계자연유산, 세계시민과 함께-꽃자왈을 중심으로'가 많은 분들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출간 '제주 꽃자왈'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탁현주 작가의 꽃자왈 관련 회화작품을 기념관 1, 2층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원찬박사는 강연을 통해 꽃자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추가해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보물로 지정,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꽃자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참가해주신 내외빈 모두 꽃자왈의 아름다움과 보존에 대해 공감한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2016년 6월 3일



오늘 6월 3일,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단,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창희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사회 회장, 김병립 제주시장, 도의원, 도내외 기관장, 도내 언론사 대표와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장 유물전(6.3~8.3)’ 오프닝에서는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의 선행을 기려 쓴 은광연세(恩光衍世) 편액이 김만덕의 선행에 대해 직접 기록이 되어 있는 ‘채제공의 변암집’,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등 진본 문집들과 함께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영상상영, 감사패 전달과 함께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김만덕 브랜드마케팅’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특히, 기념식 중간에는 조선 정조시대 제주에 유배를 온 후 제주 여인 홍윤애(洪允愛·홍랑)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조정철(趙貞喆·1751~1831)의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을 소장자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의숙이사(KBS 진품명품 감정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을 했습니다.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은 조정철이 제주에 유배를 온 후 남긴 제주기사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현재 도내에는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기념관 앞 도로에서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11톤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기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개관 이후 1년 동안 기념관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태성 나눔특강 - 조선후기 경제와 김만덕’

2016년 8월 13일



김만덕기념관이 손미나 작가, 박시백 화백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주최한 나눔특강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덕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나눔 특강은 ‘조선후기 경제와 김만덕’이라는 주제로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후기의 세금, 환곡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대민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김만덕이 행했던 구휼과 그 행적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은 EBS 한국사 대표 강사로 활동하며, KBS ‘역사저널 그날’의 패널 출연과 MBC ‘무한도전’ 한국사 강의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으로 최태성 선생님을 맞아주시고 또한 자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서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강연이 끝난 후 한분한분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마다하지 않으신 최태성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 김만덕기념관 학술회의 개최

2016년 10월 26일



10월 26일 만덕홀에서 ‘김만덕의 브랜드 자산화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만덕’이란 인물의 브랜드 자산화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브랜드 마케팅 성공사례와 접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고은숙 제일기획 본부장, 안은주 제주올레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상숲 꽃자왈 이야기’

2016년 8월 22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꽃자왈 특강 두번째, 이형철 대표(환상숲꽃자왈공원)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환상숲 꽃자왈 이야기’라는 주제로 청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꽃자왈은 도너리오름에서 분출하여 흘러내려온 아아(aa)용암의 끝자락으로 요철이 강하게 작용하여 많은 궤(둥굴)가 형성된 곳으로 세계 자연유산인 지질공원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강창화 꽃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와 특성

2016년 8월 27일



8월 27일(토), 기념관 만덕홀에서 강창화 박사(고고학, 제주고고학연구소장)가 ‘꽃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 실태와 특성’을 주제로 선혈꽃자왈과 한경꽃자왈내 숯가마터, 숯막, 움막, 음용수 유적, 노루함정 등 다양한 생활유적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좌명은 ‘꽃자왈 도립공원과 보전’

2016년 9월 3일



9월 3일 꽃자왈 특강으로 좌명은선생(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이 ‘꽃자왈 도립공원과 보전’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꽃자왈 도립공원의 식생과 생태 등 현 실태를 사진을 통해 살펴보고, 꽃자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상의 천국, 꽃자왈’

2016년 9월 10일



9월 10일(토) 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송시태박사의 ‘지상의 천국, 꽃자왈’ 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송박사는 꽃자왈의 생성과 식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꽃자왈을 조망했고, 꽃자왈 공유화를 통한 보전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특별히 ‘인간교육시민연대(회장 하기홍)’가 함께 주최해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해주시고 사랑의 나눔쌀도 기탁해주셨습니다. 인간교육시민연대 하기홍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

2016년 11월 13일



2016년 11월 13일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가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성원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김만덕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쌀, 떡, 주먹밥, 빕떡, 차, 커피 등 먹거리 나눔 행사를 펼쳤고, 김만덕 오감체험 전시와 축하공연, 아나바다장터, 나눔도서관, MBC TV 특집생방송 '김만덕 나눔 큰잔치'와 MBC 라디오 생방송 '즐거운 오후 2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부스가 펼쳐졌습니다. 나눔잔치는 모두 무료로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과 신관홍 제주도의회의장님, 이석문 교육감님, 양원찬·문영자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님이 참석해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등 시민들과 함께 나눔활동을 펼쳤

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가 참석했으며, 강운형 도지사부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도의회 김희현, 김태석, 이선화, 강성균, 현정화, 김영보, 강익자, 유진의 의원등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정언 전 도의회 의장, 고충석 국제대 총장, 고승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국주 꽃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고유봉 제주대 총동문회장, 허영호 테크노파크 원장, 제주대학교 양진건교수, 양창현 제주유네스코위원장,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자회장, 양은정 제주여성경제인협회장, 고경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이성률 부산제주도민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 제2회 김만덕 나눔 잔치는 더욱 더 풍성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에서 한국어성경제인협회에서 김만덕 사랑의 쌀 300kg와 (주)미사 조영숙 대표가 200kg를 기증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념관을 방문하셔서 기부하신 쌀을 보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 1,000kg를 기탁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은 동문시장 신지전에서 도민들에게 쌀과 진춘자 김만덕상 수상자회 회장이 직접 만든 비누를 나누며 김만덕 할머니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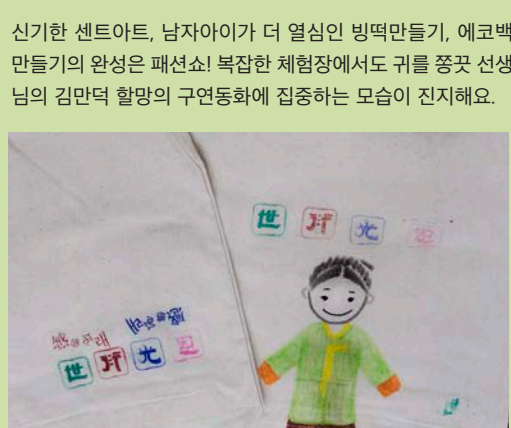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는 MBC TV 특집생방송 '김만덕 나눔 큰 잔치'로 전국에 중계되어 김만덕의 생애와 기념관이 펼쳐온 국내외에서 펼쳐온 다양한 활동을 안방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인기 MBC 라디오 생방송 '즐거운 오후 2시'의 현장 진행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도민도 함께 했습니다.



김만덕 5행시
김: 김치에 뽕지어뚱고
만: 만천하에
덕: 덕담으로 펼쳐뚱아라

만덕할망의 큰 잔치답게 다양한 세대, 가족이 참석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휴일을 보냈습니다. 기념관 앞 도로에 설치된 19개의 부스에는 먹거리, 의류, 공예품 등 다양했습니다. 일부 부스에는 길게 줄을 서기도 했고, 나눔도서관은 준비한 서적이 조기 매절되기도 했습니다. 부스운영 수익금 일부는 기념관에 기부하였습니다.





신기한 센트아트, 남자아이가 더 열심히 빙떡만들기, 에코백 만들기의 완성은 패션쇼! 복잡한 체험장에서도 귀를 쫓긋 선생님의 김만덕 할망의 구연동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해요.



임금님께 소원이 금강산 구경이라고 하신 만덕할망께서는 삶의 여유, 문화를 사랑하셨던 분이 아닐까요. 제주의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여흥 시간. 만덕할망께서 비도 내려주신다며 흥겨운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2016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 공모전

공모기간: 2016년 11월 4일 ~ 15일
 공모처: 만덕문화재단 (충청남도 당진시)
 공모대상: 만덕문화재단 회원, 만덕문화재단 후원기관,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가족,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친구,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이웃

공모분야: 나눔활동, 나눔문화, 나눔정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활동,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공모주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문화

공모대상: 만덕문화재단 회원, 만덕문화재단 후원기관,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가족,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친구,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이웃

공모기간: 2016년 11월 4일 ~ 15일
 공모처: 만덕문화재단 (충청남도 당진시)
 공모대상: 만덕문화재단 회원, 만덕문화재단 후원기관,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가족,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친구, 만덕문화재단 후원인 이웃

2016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 공모전

2016년 11월 13일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김만덕을 알리고, 김만덕 나눔정신의 계승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2016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 공모전은 2016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응시작 40여점, 수상작 17점을 김만덕기념에서 전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김만덕 나눔 큰 잔치에서 나눔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눔일반부문

△대상: 김은정(작은나눔의 시작), △최우수상: 백재열(십시일반), △우수상: 정경화(배우는 기쁨, 받는 고마움), 금시현(나눔은 “크레파스”다), △장려상: 이윤재(우리 부부의 꿈), 이창현(사랑 먹을 자격), 이나연(8800=나눔의 첫 시작으로 얻은 두 배의 행복)

▲나눔학생부문

△최우수상: 황보성(진정한 섬김), 양나영(힘들지만 하고나면 뿌듯한 봉사), △우수상: 전대산(독거노인과 함께한 보람찬 시간들), 김태의(나누면 행복하다), △장려상: 주가영(마음의 변화), 전대진(나의 자원봉사 이야기), 오하원(나의 봉사활동)

▲만덕일반부문

△최우수상: 허진우(애월초등학교6학년 도전활동<나눔·봉사>), △장려상: 김재수(사랑을 그리다)

▲만덕학생부문

△장려상: 신다연(할머니를 위한 봉사시간)



대상을 수상한 김은정씨



제1기 문화강좌 나눔 사랑展'

2016년 9월 23일 - 10월 2일



제1기 문화강좌 캘리그래피와 예술서예 수강생 '나눔 사랑展'을 김만덕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문화강좌는 3월부터 9월까지 수강하며 익힌 도전과 노력이 묻어 나는 의미있는 전시였습니다.

2016 탐라순력-제주조점

2016년 10월 12일 - 10월 31일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창작공동체 우리'와 함께 '2016 탐라순력-제주조점'이라는 주제로 김연숙, 김지은, 김현숙, 유종욱, 이다슬, 조운득, 홍진숙 작가의 기획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역사의 중심인 관덕정과제주성안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중 서예명가 10인전-제주와 절강성의 오랜 인연'

2016년 12월 4일



12월 4일(일), 김만덕기념관 기획전시 '한중 서예명가 10인전-제주와 절강성의 오랜 인연' 오프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중 참여 작가와 위성곤 국회의원, 유진의 도의원,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 서예가 한훤 현병찬 선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참여 작가들의 서예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작품전시는 12일(월)까지 9일간 진행하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은 다양한 교류전시, 기획전시, 강연, 음악회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초청 김만덕 나눔콘서트’

2016년 12월 14일



12월 14일(수) 김만덕기념관과 KCTV제주방송(사장 김귀진)이 주최한 ‘코리아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초청 김만덕 나눔콘서트’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over ture’를 시작으로 영화 미션의 ost ‘넬라 판타지아’, 오페라 잔니스키키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삽입곡, 2부에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제주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 협연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운 도민들과 감동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께서는 “오케스트라공연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참석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연주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의 무대였고 김만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소중한 공연을 함께 마련해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kctv 공성용 회장,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연장을 찾아 함께 해주신 김만덕상 수상자회 진춘자 회장님을 비롯한 수상자님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광수, 유진의 의원님, 그리고 관객들을 위해 따뜻한 차와 커피 나눔 봉사를 해주신 만덕로타리클럽 정명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무려 800인분의 오물렛을 준비해 나눔을 해주신 초아푸드시스템에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한 수준 높은 명품 공연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김만덕기념관을 통해 행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애서원 봉사활동

2016년 3월 27일



김만덕기념관에서는 3월 27일을 시작으로 만덕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주대학교 '내일로'총학생회와 '군세녀라'총여학생회가 함께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만덕봉사단은 3월 27일 제주 애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매월 1회 제주도내 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덕봉사단의 시작은 청년 중심의 봉사단이지만 어린이 봉사단, 청소년 봉사단, 시니어봉사단을 운영해 여러 사람들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덕봉사단 인효원 봉사활동

2016년 4월 30일



만덕봉사단의 두번째 봉사는 제주시 오라동 소재의 인효원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주대학교 학우 25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인효원 시설주변의 환경 정비, 실내 청소, 어르신 점심식사 보조까지 굳은 일도 군소리 없이 즐겁게 봉사활동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주케어하우스 봉사활동

2016년 5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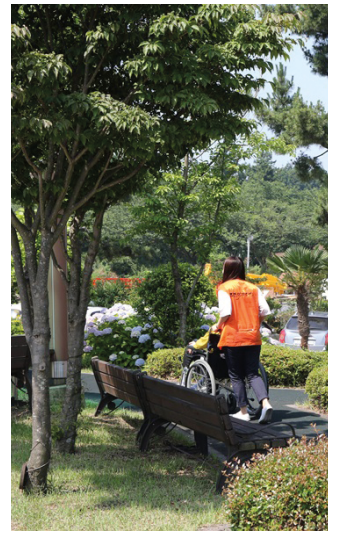


지난 5월 28일, 만덕봉사단은 제주케어하우스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케어하우스는 중증장애인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를 앓고 계신 성인 분들께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생활하고 계신 곳입니다.

만덕봉사단은 제주케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계신 방과 화장실, 계단 등을 청소하고 이동수단인 차량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돌아왔습니다. 보람되고 즐거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제광원 봉사활동

2016년 6월 27일



6월 26일 만덕봉사단이 제광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생활관 청소, 어르신들과 산책,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시설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뿌듯하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 봉사단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만덕기념관(064-759-6097)으로 연락바랍니다.

제주도립요양원 봉사활동

2016년 11월 2일



2016년 11월 2일 만덕봉사단이 제주특별자치도립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만덕봉사단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날씨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안누리길 환경 정화 봉사

2016년 8월 20일



지난 8월 20일 만덕봉사단은 제주시 동부의 해안누리길, 올레길 18코스, 19코스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가 아니라서 즐겁게 걸으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의 봉사활동도 항상 뿌듯하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에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 또한 충분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이란 주제로 1-4차 답사프로그램

2015년 10월 19일, 10월 31일, 11월 14일, 11월 21일



10월 19일과 10월 31일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이란 주제로 1-2차 답사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답사에는 제주제일중학교 학생 3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김만덕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와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김만덕이란 인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1월 14일과 21일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을 주제로, 김만덕이 활동했던 산지천과 화북포를 둘러보며 당시 제주의 사회상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11월에는 ‘비(碑)속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비석 속에 나타난 강인한 제주여성들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스타트와 함께하는 김만덕나눔캠프

2015년 9월 10일



위스타트 구리공부방의 25명 아이들은 김만덕기념관의 도움으로 9월 10~12일 동안, 제주도로 ‘김만덕의 나눔 배우기’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김만덕기념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김만덕 할머니가 힘든 사회제약을 벗어나 왕을 뵈고 금강산까지 갔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김만덕 할머니를 본받아 이제부터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新)김만덕객주 체험프로그램

1차 2016년 6월 12일



2차 2015년 6월 24일



제 2차 '신(新) 김만덕객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제주동중학교 학생들과 진행되었습니다.

3차 2016년 10월 28일



4차 2016년 11월 26일



10월 28일 금요일 제주서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3차 “신(新)김만덕 객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김만덕의 정신을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신(新) 김만덕 객주’ 체험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도일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나눔체험활동 업무협약

2015년 10월 7일



10월 7일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나눔체험활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김제농협 업무협약

2015년 6월 21일



2016년 6월 21일 김만덕기념관은 김제농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의 업무수행을 협력하고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와의 업무협약

2016년 10월 24일



10월 24일 김만덕기념관은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와 '김만덕의 나눔, 상생의 가치 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일제주인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6년 8월 23일



8월 23일 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김만덕기념관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간 '재일제주인1세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주도와 도민이 어려울때 고향 제주와 제주도민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재일제주인1세대 지원사업에 김만덕기념관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일제주인1세대 지원사업은 김만덕기념관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MBC가 함께 협력해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만덕로터리클럽과의 업무협약

2016년 11월 1일



11월 1일 저희 김만덕기념관은 민간 봉사단체인 만덕로터리클럽과 ‘김만덕의 나눔 봉사 정신 계승 및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나눔문화 확산과 김만덕정신 계승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대한민국충효범국민운동본부와 업무 협약

2016년 11월 24일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과 사단법인 대한민국충효범국민운동본부(총재 신상봉)은 24일 ‘김만덕의 나눔, 상생의 가치와 충효정신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일제주인 고향방문단 단체방문

2016년 10월 6일



10월 6일 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방문단 13명의 어르신들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김만덕기념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MBC 공동주관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사업’

2016년 10월 22일



10월 20일-10월 22일까지 김만덕기념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MBC가 공동주관한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사카를 방문했습니다. 오사카 거주 중인 재일제주인 어르신 43분의 맥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의 정성어린 성금과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을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016년 기상기후 사진전’

2016년 3월 23일 - 5월1일

2016 역사문화가 숨쉬는 기상기후 사진展

행사내용

기상기후 사진 전시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및 기상역사존 운영

부대행사

기상기후 사진전 입상작 49점 (우수 2점, 장려 4점, 입선 43점)
기후 홍보관, 기상관측 역사존 운영
기후변화 영상 상영, 제주지청기상청 역사 발자취 및 기상관측 역사관설 전시
기상캐스터 포토존 및 인증샷 포토존 이벤트 운영

기상캐스터 포토존 운영 및 사진전 관람 베스트 인증샷 포토존에 상장

내용 기상사진 관람 중 찍은 인증샷 사진 공모
기간 3월 23일(수) ~ 5월 1일(일)
선정 베스트 인증샷 포토제닉 10명
상품 문학상품권 2만원 상당
응모방법 1인 1작품 한정 이메일 접수(air2@naver.com)
※ 원모서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행사일정

	기 간	장 소	비 고
1차 전시관	3. 23(수) ~ 5. 1(일) / 40일간	김만덕기념관	이벤트 진행
2차 전시관	5. 4(수) ~ 5. 13(금) / 10일간	제주도청 본관1층	사진 전시
3차 전시관	8. 5(금) ~ 8. 15(일) / 11일간	제주자연휴양림	이벤트 진행
4차 전시관	8. 16(월) ~ 8. 25(수) / 10일간	제주대학교병원	사진 전시

※ 참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이벤트

제주기후사랑 "온디영 5백보에 따듯함" 어울림 한마당

장 소 제주자연휴양림
일 시 8월 13일(수) 오후 1시 ~ 5시 까지
내 용 기후변화관련 퀴즈, 기상·기후 체험 등

| 후원 | 김만덕기념관 / 제주도청 / 제주자연휴양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지청기상청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2016년 기상기후 사진전’ 오프닝이 김만덕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김만덕기념관 1층과 2층에서 3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2016년 기상기후사진전은 기상 역사에 대한 이해와 원도심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프리카 청소년 보은행사

2016년 4월 24일



4월 24일(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원불교 제주교구 아프리카 청소년 보은행사’가 열렸습니다.

원불교제주교구여성회(회장 송정연)가 원불교 개교 100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와질란드에서 온 아프리카 청소년 20명과 현지에서 청소년들과 동고동락하는 교무님들, 제주특별자치도 권영수 행정부지사, 현재 아프리카 청소년 한 명을 결연 후원하고 있는 도지사 부인 강윤희여사, 도내 원불교도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원불교여성회는 나눔 실천의 하나로 올해로 10년째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후원해 오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환경에 있는 80명의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제주도내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밝은 미래를 열어갈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중 우리 김만덕기념관에 나눔쌀 200Kg을 기탁해주었습니다. 김만덕의 후손답게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 이천문화원 '파랑파랑한 벤틀디'

2016년 8월 18일



2016년 8월 18일(목), 특별한 손님들이 기념관을 찾아 주었습니다. 제주와 이천의 청소년 30여 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여 김만덕과 나눔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문화원과 이천문화원은 지난 2013년 문화교류협약 이래로 활발한 문화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양 지역 청소년이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 특별한 제주여행 '파랑파랑한 벤틀디 (쨍쨍한 햇볕에)'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김만덕기념관 외에도 다랑쉬오름, 용암동굴, 세계돌문화공원 등을 방문하고, 낚시, 물놀이, 사투리 배우기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와 우정을 쌓는 뜻 깊은 여행입니다.

제16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2016년 8월 24일



8월 24일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제16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해외 31개국 한인여성지도자와 국내 참가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행사의 '글로벌여성리더포럼-제3세션 복지'에서 '시대의 금기를 깬, 조선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이라는 주제로 150여명의 청중과 함께 김만덕의 나눔과 개혁, 개혁, 개방정신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명의 발제자와 저를 포함한 3명의 패널토의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의 위대한 도전에 대해 참가자들 모두 깊이 공감하고, 해외 한인여성 지도자 모두가 자신이 김만덕이라는 자세로 도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김만덕과 해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으로 대변되는 제주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해외 한인 여성지도자들에게 김만덕과 그 정신을 알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주한콜롬비아 대사 방문 및 영화제

2016년 8월 29일, 9월 27일



8월 29일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의 H.E. Tito Saúl Pinilla Pinilla 대사 일행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 9월 27일(화) 오후 4시,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개최되는 콜롬비아 영화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티토 피니아 대사는 김만덕기념관의 협조에 감사하고,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콜롬비아에서도 잇도록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살림 하는 붓질’ 오프닝

2016년 7월 2일



7월 2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전 ‘살림 하는 붓질’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두림브라더스의 축하공연과 참여 작가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주 활동 여성작가 18인의 제주 여성의 삶을 담은 예술작품이 선을 보였으며 참여 작가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머니에게, 나에게 그리고 딸(후배)에게’ 편견 없는 세상에서 웃음꽃 피우는 여성의 삶을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작품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하였습니다. 고경화, 고운정, 고은, 김남숙, 김만, 김소라, 김영화, 김지영, 박금옥, 박진희, 양미경, 연미, 이상은, 이영희, 이지유, 장근영, 홍보람, 홍진숙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2016년 7월 2일



7월 2일 오전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20기 지도자대회 여성활동가 아카데미가 기념관 만덕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소비자 권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입니다. 김상훈 관장이 ‘김만덕의 정신’을 특별강연을 했으며, 기념관에서 해설봉사를 하는 강순희 문화관광해설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이며,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200kg의 사랑의 나눔쌀도 기부해주셨습니다.

제주색동어머니동화구연대회

2016년 7월 10일



7월 10일 기념관 만덕홀에서 (사)색동회 제주지부(회장 양민숙) 주최로 ‘제17회 제주색동어머니 동화구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색동회는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어린이 문화운동에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고, 색동회 제주지부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서 동화구연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4분의 어머니들이 동화구연대회 준비를 하면서 자녀와 함께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나눔특집 프로그램 '만덕의 전설'

2016년 8월 13일



지난 8월 13일 이벤트인제주 여름방학맞이 나눔특집 프로그램 '만덕의 전설'이 진행되었습니다.

만덕의 전설은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며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도전정신에 대하여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1가족 (40여명)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상품인 나눔 쌀은 전량 기념관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김정후박사 도시재생 특강

2016년 7월 15일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김정후 박사의 강연을 열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질문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에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주시도시재생센터 이승택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정후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애(애) 사진 전시회」

2016년 5월 6일 - 5월 19일



2016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김만덕기념관에서 「사랑애(애)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사랑이 담긴 사진을 통해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통키통키' 제1회 창단 정기연주회

2016년 12월 10일



12월 10일(토), 만덕홀에서 통키타 동아리 '제주통키통키' 제1회 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만덕홀을 가득 채운 많은 관객이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통키통키'와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의 왕성한 활동과 발전을 바랍니다.

김만덕상수상자회

진 춘 자 회장



제주에는 김만덕을 닮은 할망들이 많다. 제주라는 환경이 여인을 강하게 하고 삶을 치열한 여정으로 몬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여 남편 내조와 자녀양육, 시부모 공양에 세월의 주름이 켜켜이 쌓여 간다. 더욱이 처지가 비슷하더라도 제주여인은 육지의 여인보다 더 절약해야 하고 몇 배 더 억척스러워야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제주에서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그랬다.

진춘자 회장님은 1998년 김만덕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78세이고, 남편은 30대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홀로 따님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교편을 잡고 있다. 28년동안 신문폐지를 수집해서 불우한 이웃돕기를 계속하고 계신다. 88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주에는 자원재생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을 때였다. kg당 5원하는 돈을 모아 매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2명에게 교복을 사입히라고 돈을 주었다고 했다. 한번은 그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고 있어 연유를 알아보니 그 부모가 우선 때끼니가 없어 쌀을 사먹는 데 썼다해서 재차 교복비용을 전하기도 했단다. 그후부터는 티켓을 준다며 웃어 보이신다.

‘왜 교복을 마련해주세요?’ 여쭙보지를 못했다. 청청벽력 같은 지아비와 사별, 갑

자기 가족생계를 챙겨야 하는데 번번한 일자리도 없던 시절. 가장 혹독한 시련기에 따님의 중학교 진학할 때 교복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고, 사춘기 딸에게 친구 것과 같은 예쁜 교복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에 남아서일 것이다.

이도아파트에는 할망만의 보물창고가 아직도 운영중이다. 손주가 어려서 시작한 할망의 작업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어린 손자를 데리고 보육원에 TV를 사주러 간적이 있는데, 자기 집에도 없는 TV를 사준 할머니를 생생하게 기억해 놀랐단다. 지금 삼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손자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셨다.

‘김만덕기념관에 오시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만덕상을 수상할 때까지 만덕할망 이야기만 들었지, 제주분이고 나는 애월이라서...’ ‘그 후 할망에 대해 알수록 너무 훌륭하신 분이예요.’ ‘기념관에 오면 먼저 할망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려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만덕할망은 참 대단한 분이지요. 그분의 상을 받아 자랑스럽지만, 더 많이 배우고 잘 되신 분도 많은데...’ ‘김만덕상 수상자회는 수상자 45명 중 위로 많이 돌아가시고 지방, 외국에 계시는 분이 많아 제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누구보다 김만덕기념관의 개관을 기뻐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만덕할망께 쌀을 올렸다. 김만덕기념관의 행사에 참여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진춘자 할망을 통해 김만덕을 뵈었다. 김만덕은 역사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고 우리 할머니가 아닐까?



↑ 만덕상 수상자들과 '거상 김만덕' 출연진 (1980. 스포츠동아사진)

← 김만덕 기념관을 찾은 김만덕수상자회

김만덕 수상자는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국내외의 여성으로 봉사부문(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자)과 경제인 부문(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배품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자)으로 나눠 시상한다.

↓ 진춘자 할망 보물창고에서 직접 만들어 나눠쓰는 친환경 비누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

제36회 만덕제 2015년 10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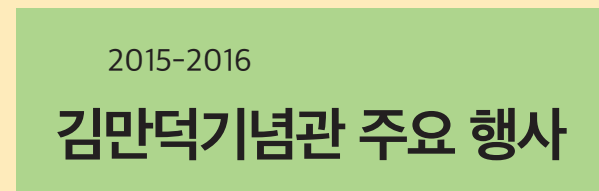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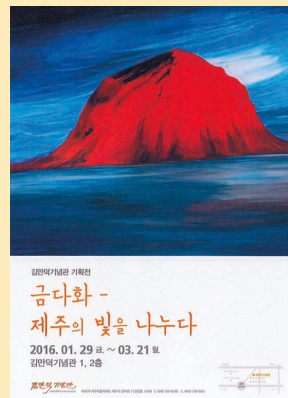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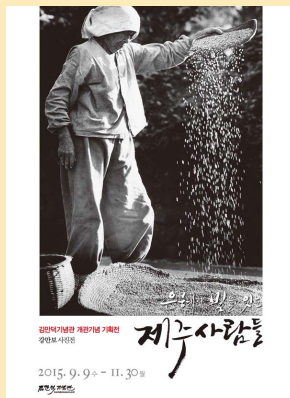
2015년 10월 7일 10시 모충사 의녀반수김 만덕묘비 앞에서 만덕제와 김만덕상 수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김만덕상은 봉사부문에서 강명순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제37회 만덕제 2016년 10월 5일



2016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제37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사라봉 모충사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김만덕기념관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탐라문화제의 첫 시작을 알

리는 행사인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제를 지냈습니다. 만덕제 봉행에 이은 김만덕상 시상식에서는 봉사부문 전해성박사님(87·미국 코네티컷주)과 경제인부문 전정숙님(91·충북)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수상하신 두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 취임

2015년 4월 28일



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회 임원들과 기념촬영

2015년 4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사)김만덕기념사업회는 김만덕기념관 초대 관장에 김상훈씨를 공모를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취임인사에서 김 관장은 “김만덕기념관을 통해서 김만덕 할머니의 정신과 삶을 널리 알리고, 고귀한 사랑을 전파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쳐 김만덕기념관을 세계적인 나눔과 봉사의 중심센터로 만들겠다. 지난 30여 년간 기업가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개관식

2015년 5월 29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개관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9번째),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6번째), 정운찬 전 국무총리(“ 10번째),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8번째)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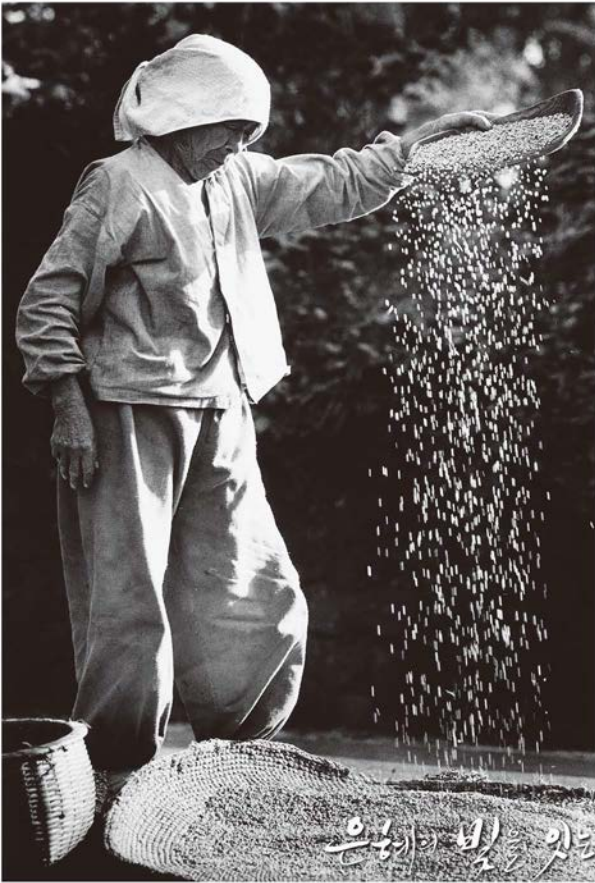


2015년 5월 29일 오전 11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등 400여 명의 도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만덕사업회 고두심 상임대표는 기념관 건립에 도움을 주신 고흥철(제주의 소리 대표), 조순여(제주도 여성정책과), 서광로, 고영숙(제주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은 제주도에서 2013년 153억원을 투입해 12월 31일 김만덕기념관을 착공했고, 1년 6개월만인 지난 3월2일 완공됐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은 부지면적 1977㎡, 건축연면적 2902.87㎡, 지상 3층 규모로 나눔교육관(1층), 기부센터 및 체험관(2층), 전시실(3층)로 구성됐습니다. 학습공간, 나눔과 베품 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개관식이 열리는 기념관 로비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쌀 2000kg이 가득 쌓여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쌀은 초대 김상훈 관장이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을 사양하자 대신 나눔쌀로 보내 준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김현 선생(김만덕 후손) 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김상훈 관장이 고승화 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쌀을 전했고, 고 회장은 “뜻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개관기념 기획전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2015년 9월 9일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기획전
강만보 사진전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2015. 9. 9수 - 11. 30월

김만덕기념관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과 배려,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살아온 제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전으로 강만보 사진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온 제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근현대 제주지역의 생활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

2015년 9월 10일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5년 9월 10일 기념관 만덕홀에서 열렸습니다.

한양대 예종석 교수의 주제발표, 양영철 제주대 교수가 사회, 양

원찬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유병택 품질재단 이사장,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강은희 아너소사이어터 회원, 여창수 KCTV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송년 자선 음악회

2015년 1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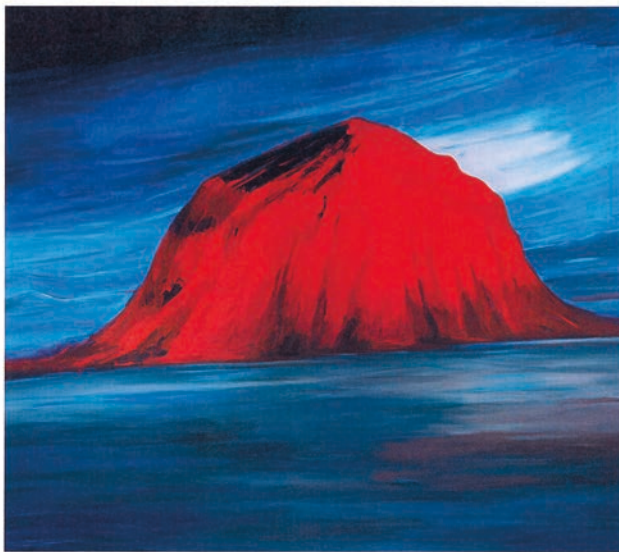
12월 20일 저녁 7시, 1200석이 모두 만석이 된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KCTV가 공동 주관한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초청 김만덕기념관 송년 자선 음악회가 감동과 열광속에 치러졌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행복을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마련된 음악회에서 벅찬 감동과 기쁨, 행복을 느끼며 때때로 흐르는 눈물을 남몰래 닦아내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전하며,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김만덕 기념관 기획전 '금다화, 제주의 빛을 나누다'

2015년 1월 29일 - 3월 21일



김만덕기념관 기획전

금다화 - 제주의 빛을 나누다

2016. 01. 29 금. ~ 03. 21 월.
김만덕기념관 1, 2층

김만덕기념관

2015년 1월 29일 ~ 3월 21일



김만덕 기념관 기획전 '금다화, 제주의 빛을 나누다' 기획전 오프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김만덕 구휼의 상징인 쌀과 밥을 담은 막사발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독창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마련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제주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미나 나눔특강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2016년 2월 27일



김만덕기념관의 나눔특강이 도민과 관광객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덕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명 아나운서에서 이제는 여행가, 작가, 기업의 대표로 또 다른 꿈을 이루고 있는 손미나씨가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성공 레시피를 전했습니다.

손미나씨는 경험속에서 체득한 선택과 재치, 계획과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달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남에게 조금이나마 빛이 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줄 길 바란다며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시백 나눔특강 - 조선후기의 주요왕들’

2016년 4월 23일



4월 23일(토) 김만덕기념관이 주최한 나눔특강 두번째 박시백 나눔특강 - 조선후기의 주요왕들'이 도민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기염관은 허반기에 김만덕이 태어나 활동했던 영조-정조-순조의 시대상과 김만덕의 나눔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한 정조시대의 영의정 변암 채제공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제주에 숨을 불어넣다-제주꽃자왈

2016년 8월 9일 - 9월 18일



8월 9일 오후3시, 김만덕기념관 기획전 제주에 숨을 불어넣다 - 제주꽃자왈 탁현주전'전시 오프닝과 꽃자왈 애니메이션 '낭이' 상영, 양원찬박사(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의 특별강연 '세계자연유산, 세계시민과 함께-꽃자왈을 중심으로'가 많은 분들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출품 제주 꽃자왈'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탁현주 작가의 꽃자왈 관련 회화작품을 기념관 1, 2층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원찬박사는 강연을 통해 꽃자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목록에 추가해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보물로 지정,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꽃자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참가해주신 내외빈 모두 꽃자왈의 아름다움과 보존에 대해 공감한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2016년 6월 3일



오늘 6월 3일,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단,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창희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사회 회장, 김병립 제주시장, 도의원, 도내외 기관장, 도내 언론사 대표와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김만덕기념관 소장 유물전(6.3~8.3)’ 오프닝에서는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의 선행을 기려 쓴 은광연세(恩光衍世) 편액이 김만덕의 선행에 대해 직접 기록이 되어 있는 ‘채제공의 변암집’,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등 진본 문집들과 함께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영상상영, 감사패 전달과 함께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김만덕 브랜드마케팅’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특히, 기념식 중간에는 조선 정조시대 제주에 유배를 온 후 제주 여인 홍윤애(洪允愛·홍랑)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조정철(趙貞喆·1751~1831)의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을 소장자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의숙이사(KBS 진품명품 감정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을 했습니다.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은 조정철이 제주에 유배를 온 후 남긴 제주기사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현재 도내에는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기념관 앞 도로에서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11톤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기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개관 이후 1년 동안 기념관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태성 나눔특강 - 조선후기 경제와 김만덕’

2016년 8월 13일



김만덕기념관이 손미나 작가, 박시백 화백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주최한 나눔특강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덕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나눔 특강은 조선후기 경제와 김만덕이라는 주제로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후기의 세금, 환곡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대민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김만덕이 행했던 구휼과 그 행적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태성 선생님은 EBS 한국사 대표 강사로 활동하며, KBS '역사저널 그날'의 패널 출연과 MBC '무한도전' 한국사 강의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으로 최태성 선생님을 맞아주시고 또한 자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서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강연이 끝난 후 한분한분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마다하지 않으신 최태성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 김만덕기념관 학술회의 개최

2016년 10월 26일



10월 26일 만덕홀에서 김만덕의 브랜드 자산화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만덕’이란 인물의 브랜드 자산화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브랜드 마케팅 성공사례와 접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고은숙 제일기획 본부장, 안은주 제주올레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상숲 꽃자왈 이야기’

2016년 8월 22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꽃자왈 특강 두번째, 이형철 대표(환상숲꽃자왈공원)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환상숲 꽃자왈 이야기’라는 주제로 청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꽃자왈은 도너리오름에서 분출하여 흘러내려온 아아(aa)용암의 끝자락으로 요철이 강하게 작용하여 많은 궤(동굴)가 형성된 곳으로 세계 자연유산인 지질공원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강창화 꽃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와 특성

2016년 8월 27일



8월 27일(토), 기념관 만덕홀에서 강창화 박사(고고학, 제주고고학연구소장)가 꽃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 실태와 특성’을 주제로 선혈꽃자왈과 한경꽃자왈내 숯가마터, 숯막, 움막, 음용수 유적, 노루함정 등 다양한 생활유적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좌명은 ‘꽃자왈 도립공원과 보전’

2016년 9월 3일



9월 3일 꽃자왈 특강으로 좌명은선생(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이 ‘꽃자왈 도립공원과 보전’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꽃자왈 도립공원의 식생과 생태 등 현 실태를 사진을 통해 살펴보고, 꽃자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상의 천국, 꽃자왈’

2016년 9월 10일



9월 10일(토) 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송시태박사의 ‘지상의 천국, 꽃자왈’ 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송박사는 꽃자왈의 생성과 식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꽃자왈을 조명했고, 꽃자왈 공유화를 통한 보전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특별히 인간교육시민연대(회장 하기홍)가 함께 주최해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해주시고 사랑의 나눔쌀도 기탁해주셨습니다. 인간교육시민연대 하기홍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

2016년 11월 13일



2016년 11월 13일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가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성원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김만덕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쌀, 떡, 주먹밥, 빕떡, 차, 커피 등 먹거리 나눔 행사를 펼쳤고, 김만덕 오감체험 전시와 축하공연, 아나바다장터, 나눔도서관, MBC TV 특집생방송 '김만덕 나눔 큰잔치'와 MBC 라디오 생방송 '즐거운 오후 2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부스가 펼쳐졌습니다. 나눔잔치는 모두 무료로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과 신관홍 제주도의회의장님, 이석문 교육감님, 양원찬·문영자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님이 참석해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등 시민들과 함께 나눔활동을 펼쳤

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가 참석했으며, 강운형 도지사부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도의회 김희현, 김태석, 이선화, 강성균, 현정화, 김영보, 강익자, 유진의 의원등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정언 전 도의회 의장, 고충석 국제대 총장, 고승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국주 꽃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고유봉 제주대 총동문회장, 허영호 테크노파크 원장, 제주대학교 양진건교수, 양창현 제주유네스코위원장,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자회장, 양은정 제주여성경제인협회장, 고경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이성률 부산제주도민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 제2회 김만덕 나눔 잔치는 더욱 더 풍성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에서 한국어성경제인협회에서 김만덕 사랑의 쌀 300kg와 (주)미사 조영숙 대표가 200kg를 기증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념관을 방문하셔서 기부하신 쌀을 보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 1,000kg를 기탁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은 동문시장 신지천에서 도민들에게 쌀과 진춘자 김만덕상 수상자회 회장이 직접 만든 비누를 나누며 김만덕 할머니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는 MBC TV 특집생방송 '김만덕 나눔 큰 잔치'로 전국에 중계되어 김만덕의 생애와 기념관이 펼쳐온 국내외에서 펼쳐온 다양한 활동을 안방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인기 MBC 라디오 생방송 '즐거운 오후 2시'의 현장 진행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도민도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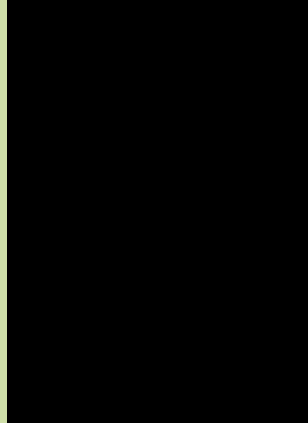
김만덕 5행시
김: 김치에 뽕지어뚱고
만: 만천하에
덕: 덕담으로 펼쳐뚱아라

만덕할망의 큰 잔치답게 다양한 세대, 가족이 참석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휴일을 보냈습니다. 기념관 앞 도로에 설치된 19개의 부스에는 먹거리, 의류, 공예품 등 다양했습니다. 일부 부스에는 길게 줄을 서기도 했고, 나눔도서관은 준비한 서적이 조기 매절되기도 했습니다. 부스운영 수익금 일부는 기념관에 기부하였습니다.





신기한 센트아트, 남자아이가 더 열심히 빙떡만들기, 에코백 만들기의 완성은 패션쇼! 복잡한 체험장에서도 귀를 쫓긋 선생님의 김만덕 할망의 구연동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해요.





임금님께 소원이 금강산 구경이라고 하신 만덕할망께서는 삶의 여유, 문화를 사랑하셨던 분이 아닐까요. 제주의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여흥 시간. 만덕할망께서 비도 내려주신다며 흥겨운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2016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 공모전

2016년 11월 13일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김만덕을 알리고, 김만덕 나눔정신의 계승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2016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 공모전은 2016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응시작 40여점, 수상작 17점을 김만덕기념에서 전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김만덕 나눔 큰 잔치에서 나눔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눔일반부문

△대상: 김은정(작은나눔의 시작), △최우수상: 백재열(십시일반), △우수상: 정경화(베푸는 기쁨, 받는 고마움), 금시현(나눔은 “크레파스”다), △장려상: 이윤재(우리 부부의 꿈), 이창현(사탕 먹을 자격), 이나연(8800=나눔의 첫 시작으로 얻은 두 배의 행복)

▲나눔학생부문

△최우수상: 황보성(진정한 섬김), 양나영(힘들지만 하고나면 뿌듯한 봉사), △우수상: 전대산(독거노인과 함께한 보람찬 시간들), 김태의(나누면 행복하다), △장려상: 주가영(마음의 변화), 전대진(나의 자원봉사 이야기), 오하원(나의 봉사활동)

▲만덕일반부문

△최우수상: 허진우(애월초등학교6학년 도전활동<나눔·봉사>), △장려상: 김재수(사랑을 그리다)

▲만덕학생부문

△장려상: 신다연(할머니를 위한 봉사시간)



대상을 수상한 김은정씨



제1기 문화강좌 나눔 사랑展'

2016년 9월 23일 - 10월 2일



제1기 문화강좌 캘리그래피와 예술서예 수강생 나눔 사랑展'을 김만덕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문화강좌는 3월부터 9월까지 수강하며 익힌 도전과 노력이 묻어 나는 의미있는 전시였습니다.

2016 탐라순력-제주조점

2016년 10월 12일 - 10월 31일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창작공동체 우리'와 함께 '2016 탐라순력-제주조점'이라는 주제로 김연숙, 김지은, 김현숙, 유종욱, 이다슬, 조은득, 홍진숙 작가의 기획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역사의 중심인 관덕정과제주성안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중 서예명가 10인전-제주와 절강성의 오랜 인연'

2016년 12월 4일



12월 4일(일), 김만덕기념관 기획전시 '한중 서예명가 10인전-제주와 절강성의 오랜 인연' 오픈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중 참여 작가와 위생곤 국회의원, 유진의 도의원,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 서예가 한훤 현병찬 선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참여 작가들의 서예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작품전시는 12일(월)까지 9일간 진행하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은 다양한 교류전시, 기획전시, 강연, 음악회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초청 김만덕 나눔콘서트’

2016년 12월 14일



12월 14일(수) 김만덕기념관과 KCTV제주방송(사장 김귀진)이 주최한 코리아 솔로이스츠 오케스트라 초청 김만덕 나눔콘서트'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over ture'를 시작으로 영화 미션의 ost 벨라 판타지아, 오페라 잔니스키키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삽입곡, 2부에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제주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 협연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운 도민들과 감동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께서는“ 오케스트라공연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참석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연주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의 무대였고 김만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소중한 공연을 함께 마련해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kctv 공성용 회장,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연장을 찾아 함께 해주신 김만덕상 수상자회 진춘자 회장님을 비롯한 수상자님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광수, 유진의 의원님, 그리고 관객들을 위해 따뜻한 차와 커피 나눔 봉사를 해주신 만덕로타리클럽 정명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무려 800인분의 오물렛을 준비해 나눔을 해주신 초아푸드시스템에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한 수준 높은 명품 공연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김만덕기념관을 통해 행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애서원 봉사활동

2016년 3월 27일



김만덕기념관에서는 3월 27일을 시작으로 만덕봉사단을 운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주대학교 내일로'총학생회와 군세녀라'총여학생회가 함께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만덕봉사단은 3월 27일 제주 애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매월 1회 제주도내 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덕봉사단의 시작은 청년 중심의 봉사단이지만 어린이 봉사단, 청소년 봉사단, 시니어봉사단을 운영해 여러 사람들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덕봉사단 인효원 봉사활동

2016년 4월 30일



만덕봉사단의 두번째 봉사는 제주시 오라동 소재의 인효원이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주대학교 학우 25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인효원 시설주변의 환경 정비, 실내 청소, 어르신 점심식사 보조까지 굳은 일도 군소리 없이 즐겁게 봉사활동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주케어하우스 봉사활동

2016년 5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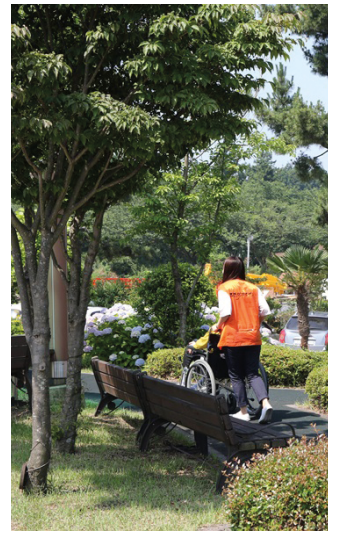


지난 5월 28일, 만덕봉사단은 제주케어하우스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케어하우스는 중증장애인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를 앓고 계신 성인 분들께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생활하고 계신 곳입니다.

만덕봉사단은 제주케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계신 방과 화장실, 계단 등을 청소하고 이동수단인 차량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돌아왔습니다. 보람되고 즐거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제광원 봉사활동

2016년 6월 27일



6월 26일 만덕봉사단이 제광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생활관 청소, 어르신들과 산책,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시설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뿌듯하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 봉사단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만덕기념관(064-759-6097)으로 연락바랍니다.

제주도립요양원 봉사활동

2016년 11월 2일



2016년 11월 2일 만덕봉사단이 제주특별자치도립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만덕봉사단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날씨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안누리길 환경 정화 봉사

2016년 8월 20일



지난 8월 20일 만덕봉사단은 제주시 동부의 해안누리길, 올레길 18코스, 19코스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가 아니라서 즐겁게 걸으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의 봉사활동도 항상 뿌듯하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에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 또한 충분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이란 주제로 1-4차 답사프로그램

2015년 10월 19일, 10월 31일, 11월 14일, 11월 21일



10월 19일과 10월 31일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이란 주제로 1-2차 답사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답사에는 제주제일중학교 학생 3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김만덕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와 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김만덕이란 인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1월 14일과 21일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을 주제로, 김만덕이 활동했던 산지천과 화북포를 둘러보며 당시 제주의 사회상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11월에는 ‘비(碑)속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비석 속에 나타난 강인한 제주여성들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스타트와 함께하는 김만덕나눔캠프

2015년 9월 10일



위스타트 구리공부방의 25명 아이들은 김만덕기념관의 도움으로 9월 10~12일 동안, 제주도로 김만덕의 나눔 배우기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김만덕기념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김만덕 할머니가 힘든 사회제약을 벗어나 왕을 뵙고 금강산까지 갔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김만덕 할머니를 본받아 이제부터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新)김만덕객주 체험프로그램

1차 2016년 6월 12일



2차 2015년 6월 24일



제 2차 신(新) 김만덕객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제주동중학교 학생들과 진행되었습니다.

3차 2016년 10월 28일



4차 2016년 11월 26일



10월 28일 금요일 제주서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3차 신(新)김만덕 객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김만덕의 정신을 배우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신(新) 김만덕 객주 체험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도일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나눔체험활동 업무협약

2015년 10월 7일



10월 7일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나눔체험활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만덕기념관-김제농협 업무협약

2015년 6월 21일



2016년 6월 21일 김만덕기념관은 김제농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의 업무수행을 협력하고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와의 업무협약

2016년 10월 24일



10월 24일 김만덕기념관은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와 ‘김만덕의 나눔, 상생의 가치 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일제주인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6년 8월 23일



8월 23일 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김만덕기념관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간 ‘재일제주인1세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주도와 도민이 어려울때 고향 제주와 제주도민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재일제주인1세대 지원사업에 김만덕기념관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일제주인1세대 지원사업은 김만덕기념관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MBC가 함께 협력해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만덕로터리클럽과의 업무협약

2016년 11월 1일



11월 1일 저희 김만덕기념관은 민간 봉사단체인 만덕로터리클럽과 김만덕의 나눔 봉사 정신 계승 및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나눔문화 확산과 김만덕정신 계승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대한민국충효범국민운동본부와 업무 협약

2016년 11월 24일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과 사단법인 대한민국충효범국민운동본부(총재 신상봉)은 24일 김만덕의 나눔, 상생의 가치와 충효정신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일제주인 고향방문단 단체방문

2016년 10월 6일



10월 6일 재일제주인 1세대 고향방문단 13명의 어르신들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김만덕기념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MBC 공동주관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사업'

2016년 10월 22일



10월 20일-10월 22일까지 김만덕기념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MBC가 공동주관한 재일제주인 1세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사카를 방문했습니다. 오사카 거주 중인 재일제주인 어르신 43분의 맥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의 정성어린 성금과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을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016년 기상기후 사진전'

2016년 3월 23일 - 5월1일

2016 역사문화가 숨쉬는 기상기후 사진展

행사내용

기상기후 사진 전시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및 기상역사존 운영

부대행사

기상기후 사진전 입상작 49점 (우수 2점, 장려 4점, 입선 43점)
기후변화, 기상관측 역사존 운영
기후변화 영상 상영, 제주지방기상청 역사 발자취 및 기상관측 역사관설 전시

기상캐스터 포토존 및 인증샷 포토존 이벤트 운영

기상캐스터 포토존 운영 및 사진전 관람 베스트 인증샷 포토존에 상장

내용 기상사진 관람 중 찍은 인증샷 사진 공모
기간 3월 23일(수) ~ 5월 1일(일)
선정 베스트 인증샷 포토제닉 10명
상품 문학상품권 2만원 상당
응모방법 1인 1작품 한정 이메일 접수(air2@naver.com)
※ 원모서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행사일정

	기 간	장 소	비 고
1차 전시관	3. 23(수) ~ 5. 1(일) / 40일간	김만덕기념관	이벤트 진행
2차 전시관	5. 4(수) ~ 5. 13(금) / 10일간	제주도청 본관1층	사진 전시
3차 전시관	8. 5(금) ~ 8. 15(일) / 11일간	제주자연휴양림	이벤트 진행
4차 전시관	8. 16(일) ~ 8. 25(목) / 10일간	제주대학교병원	사진 전시

※ 상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이벤트

제주기후사랑 "온디영 5백보에 따듯함" 어울림 한마당

장 소 제주자연휴양림
일 시 8월 13일(수) 오후 1시 ~ 5시 까지
내 용 기후변화관련 OX퀴즈, 기상·기후 체험 등

| 후원 | 김만덕기념관 / 제주도청 / 제주자연휴양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지방기상청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2016년 기상기후 사진전' 오프닝이 김만덕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김만덕기념관 1층과 2층에서 3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2016년 기상기후사진전은 기상 역사에 대한 이해와 원도심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프리카 청소년 보은행사

2016년 4월 24일



4월 24일(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원불교 제주교구 아프리카 청소년 보은행사가 열렸습니다.

원불교제주교구여성회(회장 송정연)가 원불교 개교 100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와질란드에서 온 아프리카 청소년 20명과 현지에서 청소년들과 동고동락하는 교무님들, 제주특별자치도 권영수 행정부지사, 현재 아프리카 청소년 한 명을 결연 후원하고 있는 도지사 부인 강윤희여사, 도내 원불교도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원불교여성회는 나눔 실천의 하나로 올해로 10년째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후원해 오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환경에 있는 80명의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제주도내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밝은 미래를 열어갈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중 우리 김만덕기념관에 나눔쌀 200Kg을 기탁해주었습니다. 김만덕의 후손답게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 이천문화원 '파랑파랑한 벤틀리'

2016년 8월 18일



2016년 8월 18일(목), 특별한 손님들이 기념관을 찾아 주었습니다. 제주와 이천의 청소년 30여 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여 김만덕과 나눔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문화원과 이천문화원은 지난 2013년 문화교류협약 이래로 활발한 문화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양 지역 청소년이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 특별한 제주여행 파랑파랑한 벤틀리(쨍쨍한 햇볕에)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김만덕기념관 외에도 다랑쉬오름, 용암동굴, 세계돌문화공원 등을 방문하고, 낚시, 물놀이, 사투리 배우기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와 우정을 쌓는 뜻 깊은 여행입니다.

제16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2016년 8월 24일



8월 24일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로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제16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해외 31개국 한인여성지도자와 국내 참가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행사의 글로벌여성리더포럼-제3세션 복지'에서 시대의 금기를 깬, 조선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이라는 주제로 150여명의 청중과 함께 김만덕의 나눔과 개혁, 개혁, 개방정신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명의 발제자와 저를 포함한 3명의 패널토의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의 위대한 도전에 대해 참가자들 모두 깊이 공감하고, 해외 한인여성 지도자 모두가 자신이 김만덕이라는 자세로 도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김만덕과 해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으로 대변되는 제주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해외 한인 여성지도자들에게 김만덕과 그 정신을 알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주한콜롬비아 대사 방문 및 영화제

2016년 8월 29일, 9월 27일



8월 29일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의 H.E. Tito Saúl Pinilla Pinilla 대사 일행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 9월 27일(화) 오후 4시,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개최되는 콜롬비아 영화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티토 피니아 대사는 김만덕기념관의 협조에 감사하고,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콜롬비아에서도 잇도록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살림 하는 붓질’ 오프닝

2016년 7월 2일



7월 2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전 ‘살림 하는 붓질’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두림브라더스의 축하공연과 참여 작가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주 활동 여성작가 18인의 제주 여성의 삶을 담은 예술작품이 선을 보였으며 참여 작가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머니에게, 나에게 그리고 딸(후배)에게’ 편견 없는 세상에서 웃음꽃 피우는 여성의 삶을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작품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하였습니다. 고경화, 고운정, 고은, 김남숙, 김만, 김소라, 김영화, 김지영, 박금옥, 박진희, 양미경, 연미, 이상은, 이영희, 이지유, 장근영, 홍보람, 홍진숙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2016년 7월 2일



7월 2일 오전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20기 지도자대회 여성활동가 아카데미가 기념관 만덕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소비자 권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입니다. 김상훈 관장이 김만덕의 정신을 특별강연을 했으며, 기념관에서 해설봉사를 하는 강순희 문화관광해설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이며,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200kg의 사랑의 나눔쌀도 기부해주셨습니다.

제주색동어머니동화구연대회

2016년 7월 10일



7월 10일 기념관 만덕홀에서 (사)색동회 제주지부(회장 양민숙) 주최로 제17회 제주색동어머니 동화구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색동회는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어린이 문화운동에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고, 색동회 제주지부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서 동화구연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4분의 어머니들이 동화구연대회 준비를 하면서 자녀와 함께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나눔특집 프로그램 '만덕의 전설'

2016년 8월 13일



지난 8월 13일 이벤트인 제주 여름방학맞이 나눔특집 프로그램 '만덕의 전설'이 진행되었습니다.

만덕의 전설은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며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도전정신에 대하여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1가족 (40여명)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상품인 나눔 쌀은 전량 기념관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김정후박사 도시재생 특강

2016년 7월 15일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김정후 박사의 강연을 열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질문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에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주시도시재생센터 이승택 센터장을 비롯하여 김정후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애(애) 사진 전시회」

2016년 5월 6일 - 5월 19일



2016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김만덕기념관에서 「사랑애(애)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사랑이 담긴 사진을 통해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통키통키' 제1회 창단 정기연주회

2016년 12월 10일



12월 10일(토), 만덕홀에서 통키타 동아리 '제주통키통키' 제1회 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만덕홀을 가득 채운 많은 관객이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통키통키'와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의 왕성한 활동과 발전을 바랍니다.

김만덕상수상자회

진 춘 자 회장



제주에는 김만덕을 닮은 할망들이 많다. 제주라는 환경이 여인을 강하게 하고 삶을 치열한 여정으로 몬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여 남편 내조와 자녀양육, 시부모 공양에 세월의 주름이 켜켜이 쌓여 간다. 더욱이 처지가 비슷하더라도 제주여인은 육지의 여인보다 더 절약해야 하고 몇 배 더 억척스러워야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제주에서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그랬다.

진춘자 회장님은 1998년 김만덕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78세이고, 남편은 30대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홀로 따님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교편을 잡고 있다. 28년동안 신문폐지를 수집해서 불우한 이웃돕기를 계속하고 계신다. 88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주에는 자원재생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을 때였다. kg당 5원하는 돈을 모아 매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2명에게 교복을 사입히라고 돈을 주었다고 했다. 한번은 그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고 있어 연유를 알아보니 그 부모가 우선 때끼니가 없어 쌀을 사먹는 데 썼다해서 재차 교복비용을 전하기도 했단다. 그후부터는 티켓을 준다며 웃어 보이신다.

‘ 왜 교복을 마련해주세요?’ 여쭙보지를 못했다. 청청벽력 같은 지아비와 사별, 갑

자기 가족생계를 챙겨야 하는데 번번한 일자리도 없던 시절. 가장 혹독한 시련기에 따님의 중학교 진학할 때 교복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고, 사춘기 딸에게 친구 것과 같은 예쁜 교복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에 남아서일 것이다.

이도아파트에는 할망만의 보물창고가 아직도 운영중이다. 손주가 어려서 시작한 할망의 작업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어린 손자를 데리고 보육원에 TV를 사주러 간적이 있는데, 자기 집에도 없는 TV를 사준 할머니를 생생하게 기억해 놀랐단다. 지금 삼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손자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셨다.

‘김만덕기념관에 오시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만덕상을 수상할 때까지 만덕할망 이야기만 들었지, 제주분이고 나는 애월이라서...’ 그 후 할망에 대해 알수록 너무 훌륭하신 분이예요.’ 기념관에 오면 먼저 할망께 머리 숙여 인사를 드려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만덕할망은 참 대단한 분이지요. 그분의 상을 받아 자랑스럽지만, 더 많이 배우고 잘 되신 분도 많은데...’ 김만덕상 수상자회는 수상자 45명 중 위로 많이 돌아가시고 지방, 외국에 계시는 분이 많아 제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누구보다 김만덕기념관의 개관을 기뻐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만덕할망께 쌀을 올렸다. 김만덕기념관의 행사에 참여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진춘자 할망을 통해 김만덕을 뵈었다. 김만덕은 역사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고 우리 할머니가 아닐까?



↑ 만덕상 수상자들과 ‘거상 김만덕’ 출연진 (1980. 스포츠동아사진)

← 김만덕 기념관을 찾은 김만덕수상자회

김만덕 수상자는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국내외의 여성으로 봉사부문(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자)과 경제인 부문(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배품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자)으로 나눠 시상한다.

↓ 진춘자 할망 보물창고에서 직접 만들어 나눠쓰는 친환경 비누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

제36회 만덕제 2015년 10월 7일



2015년 10월 7일 10시 모충사 의녀반수김 만덕묘비 앞에서 만덕제와 김만덕상 수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김만덕상은 봉사부문에서 강명순님이 수상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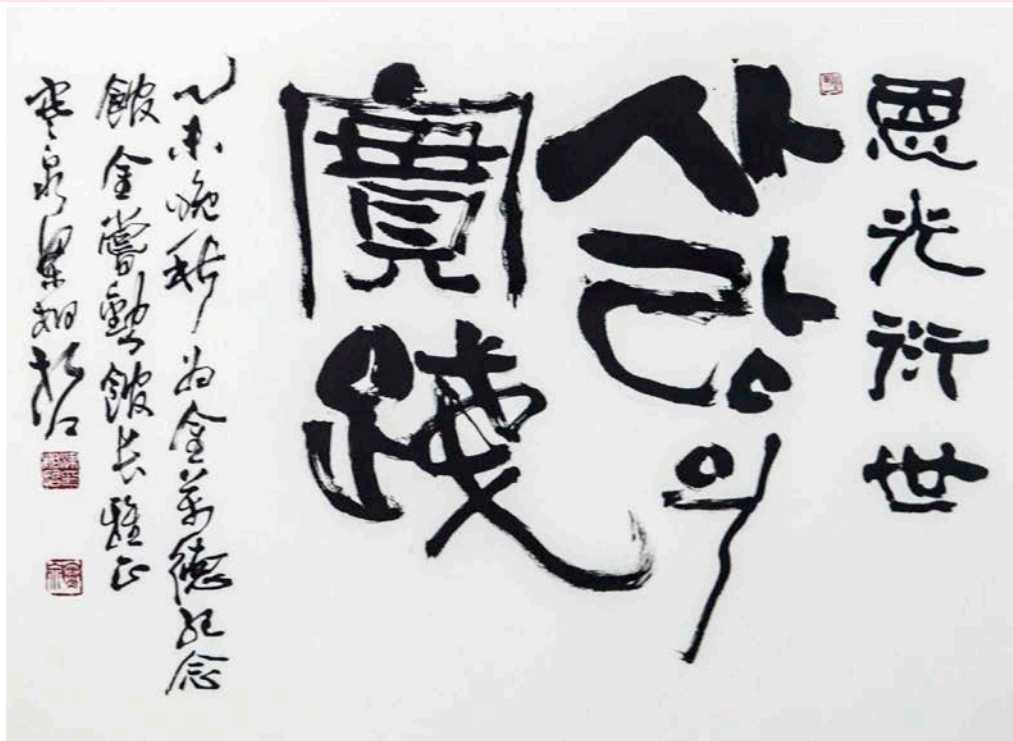
제37회 만덕제 2016년 10월 5일



2016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제37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사라봉 모충사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김만덕기념관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탐라문화제의 첫 시작을 알

리는 행사인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제를 지냈습니다. 만덕제 봉행에 이은 김만덕상 시상식에서는 봉사부문 전해성박사님(87·미국 코네티컷주)과 경제인부문 전정숙님(91·충북)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수상하신 두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김만덕기념관 방문 및 나눔



기부자 명단 (ㄱ -)

※ 무기명, 수회 반복 나눔에 참여하신 분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덕재
강경숙(포도원)
강계자
강기호
강두철
강석우
강성우
강순자
강순희
강승수
강영수
강영철
강영필
강우준
강우현,강서연
강원화
강찬식
강창일의원 임원진 일동
강한일
개발공사 사장 김영철
건입동 마을회

건입동마을협동조합
경주김씨종친회 김부일
경천흥업
계정희
고기일
고남하
고남화
고성익
고승은
고승화
고영심
고영철
고은빛 코스메틱
고희열
교효정
권혁태
금영해운
금영해운 정영자
기상청
기혜은 기민철
김고은

김고은 김은미
김근배
김남권
김남규
김대원
김대현(의귀리)
김대호
김덕규 김지표
김도현
김동규
김두형
김만권
김만덕기념관 직원
김명신
김명준
김명화
김모네
김민관
김부일
김성옥
김성웅

어린이집 · 유치원생



기부자 명단 (ㄱ - ㄴ)

김성원	김종범 김소영	농협서귀포시지부
김세억	김종훈 1921회	농협제주본부 강덕재
김수연	김창희	다이너스티 민경준
김순림	김철호	대정노인대학
김순호 전 도의원	김태동	대정여고 5회 동창회
김승중	김태호	대정초 53회 동창회
김애자	김태환	대정편찬위원회 일동
김양훈	김태희	대한항공
김영선	김해김씨좌중승하중친회	도 여협 고양순 회장
김영철(건대 행정대학원장)	김해김씨중앙중친회 김동근부회장	도남동 시민
김용학	김현진	동광해운(주)
김우사가족	김형중	동양대학교 이정화 교수
김이레	김휘람	동원설비(주)
김인혁	김희경	동초축구부학부모회
김인혁(유정숙)	김희철	라온레저개발
김일환	나태동 나태호	레오 김훈범
김제농협 쌀 기부	노주현	렛츠런파크제주
김재영	노현규	류현경 류병진
김정순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만덕상 수상자회
김정임	농협 제주지역본부	만덕전설 프로그램 참가자



초등학생



기부자 명단 (ㄱ - 나)

만덕회
명아원 정광웅
목화로타리
문경미
문관영
문영찬
문옥희
문정아
문정희
문준호
문춘자
민영현
박규호
박기석
박길현
박노군
박노혁
박동명
박두의
박상준

박연주
박윤희
박장서
박충열
발로타
백기승
백정자
변정일
보우
보우스킨케어
보우외 식당들
봉성교회
부만근
부산동구회
부산제주도민회
부영애
북초교 5학년 바자회
산지경로당 노인봉사단
산지천축제위원회
서귀중앙여중 2학년

서귀포 칠십리로터리클럽
서귀포문화원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홍길식
서울성남고26회
서울시 박진양 김철현
서울제주도민회 김창희 회장
선미리
세화해녀민속시장 고기언 회장
세화해녀민속시장 변현철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 한길순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손유원 송경철
송년자선음악회
송시태
송연희가족
송유림 임해준
송유림, 송진호
송진호
송창우

초등학생



제주 북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일도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

기부자 명단 (나눔)

송현철	양정호(탐동사진반)	우영훈
송현철, 송유림, 송진호	양주현	원불교 제주교구 여성부
수운교청정봉사단	엠비모임	원창도(제주콤)
승혜수산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부	원희룡지사
신도시로타리	연세글로벌리더쉽포럼 3기	유주희 유정우
신동주	연세대학교 제주동문회	유한익
신동훈	오갑식	육금순(유니온아이앤씨)
신봉주	오경수	윤경중
신용국	오경하	이경선
썬호텔 양미언팀장	오라성-고성익대표	이경숙
아름다운동행, 수눔음	오만석	이근실
아현성당	오만석(모슬포)	이남숙
안경훈	오승익	이대범
안병열	오승훈	이문두
안수민	오예림	이선영
안지현	오철우	이선진
안진희	오한근	이성준, 현준, 서형
알파티엔엘	오혜숙	이승섭
양상철	와타나베	이영무
양원찬	우선욱	이영애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실천하는 바자회'



지난 6월 제주북초등학교 학생들의 김만덕기념관 단체관람이 있었습니다. 김만덕기념관에서 김만덕의 나눔정신에 대하여 학습하고 감명을 받은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 나눔정신을 실천하고자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실천하는 바자회'라는 이름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자회의 수익금을 김만덕기념관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어린 이들의 작은 손으로 이렇게 큰 마음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북초등학교 학생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기부자 명단 (ㅇ-ㄷ)

이용길 학장	전귀연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재봉	전귀연고문	제주여성포럼
이정부	전도상회	제주여중고동문회 이은희
이정순	전익주	제주여중고장학재단 이사 일동
이현준	전익주	제주올레파크 김정호
이형철	정경원	제주은행
인간교육시민연대	정대종	제주일고 14회 동창회
인수한의원	정서윤 정하진	제주일고 총동문회장 현성우외 회원
인터넷진흥원장 백기승	정운찬	제주테크노파크
일심선경개발	정유진 정연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임봉준	정현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승복	정후선	제주팔각회
임정연,임해준	제1기문화강좌수강생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장기조	제대박물관장 문혜경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적십자봉사회
장상우	제주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조영숙
장순희	제주관광공사	조용일
장영지 장우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	조한희
장정규	제주국제협의회	차진광
재경오현고동문회 오승훈회장	제주라이온스 354부인회 현정자 회장외	차진광님의
재경일고 28기 산악회	제주미래행복포럼	창작공동체 우리
재놀이배 어린이집	제주사대부고 제주어동아리	청도 김씨 가족

청소년



기부자 명단 (ㄱ -)

최갑열	허영호	CU 종합청사점 도화님
최동숙	허재노 오승훈	K-water 제주사업단 김동규
최연순	허태준	kctv 제주방송
최장민	현규호	KEB하나은행제주본부
피플라이프 김경미	현성수	YGLF 3기 사무총장 문자원
한가휘	현성욱	(주)디알엠씨티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현왕수	(주)성은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현창종	(주)의인
한국은행	현화진	(주)이에스리조트
한라로타리클럽	호텔레오	(주)인포마인드
한라산 CC	홍경훈	(주)제키스
한라일보 리더스클럽 장태범	홍명표외 1명	(주)키프로
한소리여성합창단	홍성칠	(주)태건상사
한소리여성합창단봉사회	홍순천	(주)한라산소주
한정희	홍영선	088-화학4기
해설사협회 서문회 4기	홍주안	
향기램프테라피	화곡본동성당	
허기원	화룡각	
허능필	황경연	
허세진	황용비	
허영배	24회 만덕수상자 해전 (모덕사)	

청소년



성인 · 단체



기념관 방문

해외 각국 외교사절단



2015년 11월 8일 해외 각국 주한대사 등 외교사절단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19개국 32명의 외교사절단은 제주도의 정신이며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의인 김만덕이라는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CEO, 한국을 대표하는 자선사업가이며 개혁, 개방, 개척 정신의 선구자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김만덕할머니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베트남 칸호아제주초등생



2015년 6월 2일 베트남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25명이 제주한라초등학교 학생들과 김만덕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을 맞은 김만덕기념관 김상훈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베트남 만덕학교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때가 떠올라 감격스럽다며 김만덕의 고향 제주를 찾은 학생들을 환영하고, 기념관 방문을 통해 김만덕의 정신을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기념관 방문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



다비드 우수파쉬빌리(David USUPASHVILI) 조지아 국회의장과 니콜로스 아프카자와(Nikoloz APKHAZAVA) 주한 조지아 대사 일행은 2016년 2월 26일 오후 제주도 도착후 첫 공식행사로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국회의장은 김만덕의 생애와 나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의 나눔 문화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한 4개국 대사 부인 방문



6월 12일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주한 4개국의 대사 부인들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제주국제협의회(회장 고충석)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소장 변종현) 등이 공동 주최한 제주비전 대사회의행사의 일환으로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상설전시실을 관람한 대사 부인 일행은 김만덕의 나눔과 그 정신에 공감하며, 자연경관 만큼이나 아름다운 제주도민들의 마음에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 글로벌 리더과정 (대관행사)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 김봉오 원장님과 직원

우간다 학생



기아대책에서 후원해주는 우간다 학생들

기념관 방문

김만덕 표준영정 작가 윤여환 교수



충남대학교 예술대 윤여환 교수님은 김만덕 표준영정의 작가입니다. 김만덕 표준영정은 국가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6 김만덕상 수상자 전해성 박사



전해성 박사는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출신인 고광림(1989년 작고) 박사의 부인이며, 현재 미국 오마바정부의 차관보가 된 아들 고경주·홍주씨의 어머니입니다.

'아태w위기경영포럼제주' 참석자



캐달리스트 부회장인 신시아 엠리치 박사등 포럼 관계자

김군선생 방문



김만덕기념사업회에 '恩光衍世(은광연세)' 편액을 기증해주신 김군선생님과 가족분들이 저희 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김만덕수상자회



김만덕기념관 방문 및 나눔



통계로 본 나눔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2010년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3%보다 3.5배나 높다.”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1.3%가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47만 명의 어린이가 방학 동안에도 급식을 필요로 합니다. 미아, 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는 해마다 9,000명씩 생겨난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지구촌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나라에서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는 1,100명, 희귀난치성 환자는 61만 명이다.”
 “가출 청소년 2만 8000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11만 명 등 위기청소년은 87만 명에 이른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20만 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6.4%나 되는 높은 수치이다.”



김만덕기념관 방문 및 나눔



김영해운 정영자회장



함덕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정초등학교 53회 동창회



발포초등학교



제주 문화관광해설사협회



대정여고 5회



제주문화관광해설사협회 4기 서문회 오영익 회장일행



건강동마을협동조합 임봉준 이사장님 일행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언론인클럽 홍명표 회장님

김만덕기념관 방문 및 나눔



산지경로당 노인봉사단



제주여성포럼



소비자교육중앙회 전국 시도지회 회장단



독립기념관 교원직무연수



인재개발원 교육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



삼육대학교 차진광 교수님



기획재정부 이고은 사무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2016년도 수습사무관



전국 특별 · 광역시 추자원본부 직원 방문

김만덕기념관 방문 및 나눔



고려대학교 공경선 학원 최고경영자과정 81기



차원석신부님과 일행



대정노인대학



김운사선생님 가족일동



피플라이프 김경이 지점장



금일백만원정



제주라이온스클럽 부인회 현정자 회장님 일동



서귀포문화원 문화학교



오라성 대표 고성익

오라성 구성의 대표님



소비자교육중앙회 전국 시도지회 회장단

김만덕기념관 방문 및 나눔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학생



신성여고동창회



2016 글로벌 창조 경제 현장 체험



화곡본동성당 주임신부 강문일 외



명아원 정광웅 대표



제주국제갤러리 김병수 회장님 나눔쌀 500kg을 기부



피플라이프 지점장 김경미



화남식품산업 오승훈 사장님 240만 원 기증



김택남 공동대표와 최화환 사장님 나눔쌀 1,000kg을 기부



제주미래환경연구소 김영관 대표님 나눔쌀 150kg을 기부

김만덕기념관 나눔쌀 배분

개관축하 나눔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시에 기탁



2015년 6월 25일 김만덕기념관 개관을 축하하며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나눔쌀 중 600kg과 삼다수 1,200병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주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개관축하 나눔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귀포시에 기탁



2015년 9월 22일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나눔쌀 전달식. (왼쪽부터) 서영숙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상훈 관장, 현을생 서귀포시장. 이 쌀은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과 도내외의 기부자들의 정성을 모은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기증한 삼다수 500ml 1200병과 함께 공동모금회 서귀포시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에 전달



제주시 이도이동주민센터에 전달



2016년 2월 2일, 도내외 기부자들과 기념관을 방문해주신 분들께서 기부해 주신 나눔쌀 500kg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에 전달하였습니다.

3월 24일 나눔쌀 300kg을 이도이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성이시돌복지의원, 성이시돌요양원에 기탁



2015년도 나눔쌀 배분 현황

2015. 5 - 2015. 12

월	일	배분처
5	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특별자치도)
6	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시)
9	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귀포시)
11	17	제주광역푸드뱅크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이도이동주민센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12	22	도 보건복지여성국
	30	성이시돌요양원, 복지의원

김만덕기념관 나눔쌀 배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증 쌀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3월 15일(화) 오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나눔쌀 200Kg을 김만덕기념관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나눔쌀 기탁은 원희룡지사가 사랑의 쌀 도전 릴레이(러브 라이스 챌린지)의 여섯 번째 주자로서 동참해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에 200Kg을 기탁하고, 김만덕기념관에도 함께 200Kg을 기탁한 것입니다.



나눔쌀 300Kg을 제주시 일도일동주민센터에 전달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700Kg 전달



사랑의 나눔쌀 400kg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정효원에 전달



6월22일 사랑의 나눔쌀 300kg 지적장애인주거시설 뽕엘에 전달



6월 9일 사랑의 나눔쌀 600kg을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전달



정효원, 제주요양원, 제주태고원에 전달

2016년도 나눔쌀 배분 현황

2016. 1 - 12



나눔쌀 500Kg 노형동사회보장협의체와 노형동장애인지원협의회에 전달



사랑의 나눔쌀 500Kg을 노형성당 빈첸시오회에 전달



2015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1,000kg을 기탁



2015년 11월 22일 성이시돌복지지원회와 성이시돌요양원에 기탁

월	일	배분처
1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2	2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
3	24	이도이동주민센터
5	3	일도일동주민센터
	12	성이시돌요양원 복지지원
6	3	개관1주년기념 (제주도내)
	5	건입동 연합청년회 (관내 개별가정)
	12	지체장애인협회 대정분회
	20	조천읍사무소(관내 개별가정)
	23	지적장애인시설 뽕엘
	29	건입동 주민센터(관내 개별가정)
7	29	정효원
8	3	가톨릭사회복지회
	26	이도이동주민센터(관내 개별가정)
9	7	노형성당 빈첸시오회
	12	노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형동장애인지원협의회
	24	다문화가정 지원
	26	일도일동주민센터(관내 개별가정)
	26	이도이동주민센터(관내 개별가정)
		순복음종합복지관
	27	건입동주민센터(관내 개별가정)
	28	지역희망 박람회(서울 시설 기부)
10	14	아름다운제주국제마라톤나눔
	18	음식문화축제나눔
	20	음식문화축제나눔
11	4	정효원
		태고원
		제주요양원
		제주공생
	8	천주교 제주교구 어르신대학
	9	나눔큰잔치 떡 나눔
	10	감굴마라톤 나눔
	12	대정읍 장애인협회
		한림읍 독거노인
	13	나눔큰잔치 도민 나눔
		나눔큰잔치 밥 나눔
	14	푸드뱅크
	18	중앙성당 2빈첸시오
		방어축제 나눔 기부
12	1	노형동 개별세대
	7	지적장애인시설 뽕엘
		동문성당 사회복지위원회
	11	삼광사 덕희봉사회
	13	서귀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만덕기념관 나눔쌀 배분

김만덕기념관은 국가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공립박물관입니다. 기획전시와 학술세미나, 역사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 박물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김만덕기념관은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청장년, 노년층에 이르는 모든 세대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도 참여하여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만덕 사랑의 쌀은 단순히 굶주림을 벗어나는 단계에서 벗어나 나눔에 참여한 이는 자선의 기쁨을 체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만덕 할망의 따스한 손길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김만덕기념관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문객, 자원 봉사자, 나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삼광사 덕희봉사회 김장나눔행사에 김만덕기념관도 300kg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정효원, 제주요양원, 제주태고원, 제주공생에 전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주도 사랑나눔푸드마켓, 정효원, 불교자비원, 제주요양원, 제주원광요양원 4곳에 배분



제주고 제주교구 어르신대학에 사랑의 나눔쌀 300kg을 전달



나눔쌀 400kg을 대정읍 장애인협회에 전달

언론에 보도된 김만덕기념관



※ 김만덕기념관 관련 발체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김만덕정신 세계화 “기념관”첫 삽



제주여성 김만덕의 배려, 나눔과 봉사의 실천정신을 구현할 김만덕기념관 기공식이 3월11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하여 도의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대 금산생태공원 앞1,982㎡의 부지 위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2,932.38㎡의 규모로 국비 37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12월말 준공 목표로 한 김만덕기념관 건립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김만덕기념관 기공식에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공식 인사말에서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 탐라문화광장의 키워드(keyword)가 될 기념관으로 건립하고 김만덕 정신을 더욱 선양할 수 있도록 「김만덕의 날 및 주관을 제정」 하여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을 계승하고 세계적인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김만덕기념관은 당초 모충사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탐라문화광장의 연계, 기념관 건립 후 관광객 유입 및 기념관 활용 등을 볼 때 탐라문화광장 내 건립이 타당하다는 지역주민과 김만덕기념사업회 의견수렴,

2012.6월 도의회 승인 후 현재 부지에 건립하게 됐다.

건축공사는 김만덕기념사업회 추천 1명과 건축, 디자인 등 분야별 단체, 대학 등 전문가를 응모업체의 추천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의견과 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의거 업체가 추천한 평가위원회에 의거 선정되었다.

기념관 전시는 5월말까지 단체 및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1층 나눔교육관, 2층 기부센터 및 체험관, 3층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21세기 인간성 상실의 회복, 공동체 의식의 계승 및 사회통합의 위기 해결 등을 위한 정신문화 공간 및 교육장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만덕기념관은 올해말까지 김만덕기념관 운영 및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제주여성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문화의 확산을 기하게 된다.

또한, 인근의 탐라문화광장, 김만덕객주터, 금산생태공원, 올레 18코스 등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나눔 실천으로 굶주린 제주 백성을 구한 여성상인 김만덕(金萬德·1739~1812년)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사업이 11일 첫 삽을 떴다.

이날 오전 제주시 건입동 금산생태공원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의상 김만덕은 현재 가치로 600억~7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제주 백성을 구원했다”고 김만덕 정신을 기렸다.

기념관은 금산생태공원 옆 1천884㎡ 부지에 지상 3층, 전체면적 2천932㎡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다. 올해 말 준공해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기념관에는 김만덕의 생애를 소개하고 영정·유품·기록물 등을 보여주는 전시관과 굶주림을 체험하고 나눔 체험 활동을 하는 기부센터 및 고난체험관, 기부문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나눔교육관 등이 마련된다. ▽

제주인뉴스

제주여성 김만덕의 배려, 나눔과 봉사의 실천정신을 구현할 김만덕기념관 기공식이 3월11일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하여도의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대 금산생태공원 앞1,982㎡의 부지 위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2,932.38㎡의 규모로 국비 37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말 준공 목표로 한 김만덕기념관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다.

김만덕기념관 기공식에서 우근민 ▽

‘나눔 실천’의 상징 ‘김만덕’기념관 첫 삽(종합)

국내 첫 나눔문화 전시관, 내년 3월 개관

도는 또 35억원을 투입해 건입동 동사무소 동쪽에 있는 객주(상인들이 물건 매매를 알선하고 여객들이 숙박하던 곳) 터 1천371㎡에 김만덕이 살았던 본가, 객관(여관), 주막 등 당시의 건물과 거리 등을 재현하는 사업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김만덕은 1794년 제주에 흥년이 들자 전 재산을 털어 산 곡식을 나눠줌으로써 도민들을 굶주림에서 구해 정조로부터 내의원(內醫院)에 속한 여의(女醫) 가운데 으뜸인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벼슬을 받았다. 당시 좌의정이던 체제공(蔡濟恭)은 ‘만덕전’을 지어 그녀에게 전달했으며, 추사 김정희도 ‘은광연세(恩光衍世·은혜로운 빛이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글을 지어 김만덕의 선행을 찬양했다.

현재 제주시 사라봉공원 내 모충사에 김만덕을 기리는 330㎡ 규모의 전시실이 있으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80년부터 ‘김만덕봉



사상’을 제정하고 매년 국내에서 탁월한 봉사정신을 발휘한 여성 1명을 뽑아 시상해오다 2006년부터는 명칭을 ‘김만덕상’으로 바꾸고 국내외 여성을 대상으로 봉사, 경제인 분야의 수상자 각각 1명을 선정해 탐라문화제 때 열리는 만덕제에서 시상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2004년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묘지 성역화 사업, 학

술연구 총서 발간, 사이버기념관 구축, 화폐 인물 모델 선정 홍보, 나눔 쌀 쌓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김만덕 기념사업과는 별도로 금산생태공원과 이웃한 산지천 일대에 생태하천, 테마정원, 세계음식테마거리 등을 갖춘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이 일대가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3월 11일

임대영 기자

김만덕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김만덕기념관 첫 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공식 인사말에서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 탐라문화광장의 키워드(keyword)가 될 기념관으로 건립하고 김만덕 정신을 더욱 선양할 수 있도록 「김만덕의 날 및 주간을 제정」 하여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을 계승하고 세계적인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김만덕기념관은 당초 모충사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탐라문화광장의 연계, 기념관 건립 후 관광객 유입 및 기념관 활용 등을 볼 때 탐라문화광장 내 건립이 타당하다는 지역주민과

김만덕기념사업회 의견수렴, 2012.6월 도의회 승인 후 현재 부지에 건립하게 됐다.

건축공사는 김만덕기념사업회 추천 1명과 건축, 디자인 등 분야별 단체, 대학 등 전문가를 응모업체의 추천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의견과 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의거 업체가 추천한 평가위원회에 의거 선정되었다.

기념관 전시는 5월말까지 단체 및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하여 1층 나눔교육관, 2층 기부센터 및 체험관, 3층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21세기 인간성 상실의 회복, 공

동체 의식의 계승 및 사회통합의 위기 해결 등을 위한 정신문화 공간 및 교육장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만덕기념관은 올해말까지 김만덕기념관 운영 및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제주여성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문화의 확산을 기하게 된다.

또한, 인근의 탐라문화광장, 김만덕객주터, 금산생태공원, 올레 18코스 등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김만덕 기념관 전시 밀그림 완성



제주도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경영인 제주여성 김만덕의 시대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김만덕 기념관'의 전시 밀그림이 그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한 여성 CEO 김만덕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시대정신'을 선양키 위해 추진중인 김만덕 기념관의 전시 밀그림을 대부분을 완성했다고 8일 밝혔다.

김만덕 기념관의 전시는 전시 설계와 제작, 설치업체에서 공모 제안된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5일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전시자문위원회에서 매월 한차례씩 회의를 거쳐 구체화시켰다.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를 전시 주제로 관람 동선을 따라 3층의 '상설전시관'과 2층의 '나눔명상관 및 나눔실천관'을 거쳐 1층의 '나눔문화관' 등 층별 특색선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3층 상설전시관에서는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라는 작은 주제로 '의인 김만덕, 만덕정신 도전, 만덕정신 나눔, 은혜로운 빛 김만덕, 김만덕 기념사업, 빛을 잇는 사람들'의 존을 만들어 영정과 유품, 기록물 등을 전시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김만덕의 일생 이야기와 도전과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층 나눔명상관에서는 '은혜로운 빛을 받는다'라는 작은 주제로 '은혜의 빛' 존에서 김만덕의 정신을 두 손 모아 받아 마음에 새기도록 마련하고 있다.

나눔실천관에서는 '은혜로운 빛을 따르다'는 작은 주제로 빛다독 폭낭, 빛자람마을, 빛누리광장, 빛이음마을 존에서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방법을 배우도록 했다. 마지막 1층의 나눔문화관에서는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는 소 주제로 나눔 커뮤니티 활동과 재능 기부의 문화가 퍼지는 열린 나눔 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

이같은 전시 밀그림은 이달 말쯤 설계도서 검토를 거치고, 전시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김만덕 기념관은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원 금산생태공원 앞에 지어지고 있다.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932㎡ 규모로 오는 12월 30일쯤 준공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을 41.5%를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유물을 단순히 전시하는 정적인 기념관이 아니라 봉사와 기부 및 나눔 문화 등 21세기 시대정신과 연계된 살아 움직이는 기념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만덕기념관 5월 개관

위탁운영기관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선정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기관으로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기관 공모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사)김만덕기념사업회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돼 기술과 가격협상을 거쳐 지난 15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5년 4월 15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이에 따라 (사)김만덕기념사업회는 지난 15일 자체 홈페이지와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장 채용공고를 하였고, 학예사 등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채용공고도 23일까지 실시한다.

인력배치가 완료되면 4월말 시설물 인수 인계와 종합시운전 등 민·관이 협력하여 5월 본격운영을 위한 개관준비팀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만덕기념관은 제주시 산지로 9-1(건입동) 일대 부지면적 1977㎡, 건축연면적 2902.87㎡,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나눔교육관(1층), 기부센터 및 체험관(2층), 전시실(3층)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학습공간, 나눔과 베품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김만덕의 정신을 담다'를 기본 목표로 김만덕 생애와 정신의 기록,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을 계승한 나눔실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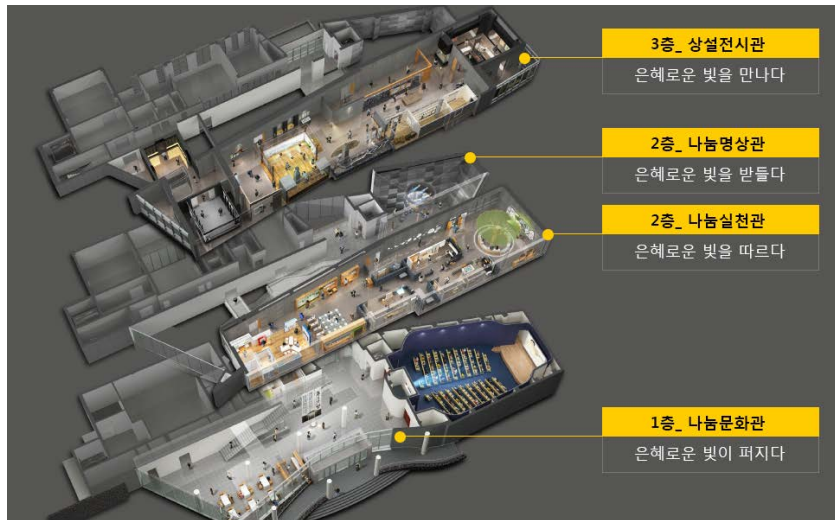
또 아울러 탐라문화광장, 김만덕 객주터, 물사랑홍보관이 있는 금산생태공원, 올레 18코스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및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2014년 08월 10일

좌용철 기자

김만덕 기념관, 내부는 어떨까? 전시 밀그림 '완성'



제주도는 김만덕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시대정신'을 선양키 위해 추진 중인 김만덕 기념관의 전시 밀그림을 대부분을 완성했다고 8일 밝혔다.

김만덕 기념관의 전시는 전시 설계와 제작, 설치업체에서 공모 제안된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월25일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전시자문위원회에서 매월 한차례씩 회의를 거쳐 구체화시켰다.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를 전시 주제로 관람 동선을 따라 3층의 '상설전시관'과 2층의 '나눔명상관' 및 '나눔실천관'을 거쳐 1층의 '나눔문화관' 등 층별 특색선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3층 상설전시관에서는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라는 소주제로 '의인 김만덕, 만덕정신 도전, 만덕정신 나눔, 은혜로운 빛 김만덕, 김만덕 기념사업, 빛을 잇는 사람들'의 존을 만들어 영정과 유품, 기록물 등을 전시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김만덕의 일생 이야기와 도전과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층 나눔명상관에서는 '은혜로운 빛을 받는다'라는 작은 주제로 '은혜의 빛' 존

에서 김만덕의 정신을 두 손 모아 받아 마음에 새기도록 마련하고 있다.

나눔실천관에서는 '은혜로운 빛을 따른다'는 작은 주제로 빛다독 폭낭, 빛자람 마을, 빛누리광장, 빛이음마을 존에서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방법을 배우도록 했다.

마지막 1층의 나눔문화관에서는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는 소 주제로 나눔 커뮤니티 활동과 재능 기부의 문화가 퍼지는 열린 나눔 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했다. 이 같은 전시 밀그림은 이달 말쯤 설계도서 검토를 거치고, 전시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만덕 기념관은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원 금산생태공원 앞에 건립되고 있다.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932㎡ 규모로 오는 12월30일쯤 준공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41.5%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물을 단순히 전시하는 정적인 기념관이 아니라 봉사와 기부 및 나눔 문화 등 21세기 시대정신과 연계된 살아 움직이는 기념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 SEGYE.com

2015년 4월 21일

임성준 기자

'제주의 의녀' 김만덕 기념관 5월 개관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만덕기념관은 제주시 산지로(건입동)에 부지 1977㎡, 건축연면적 2902㎡,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기념관은 나눔교육관, 기부센터·체험관, 전시실로 구성돼 아이들의 학습공간, 나눔과 베품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사업비 153억원이 투입됐다.

기념관은 '김만덕의 정신을 담다'를 기본 목표로 김만덕 생애와 정신의 기록,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을 계승한 나눔실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년간 위탁운영을 하게 될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이달 중 관장과 학예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들어갔다. 기념관 인근에 의녀 김만덕의 객주터도 재현됐다. 객주터는 제주항 인근 2146㎡에 김만덕이 살던 초가 4동, 여관과 주막으로 사용된 초가 4동을 재현했다. 객주터는 상인들이 물건 매매를 알선하고 여행객들이 숙박하던 곳이다. 김만덕은 이곳에서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미역·전복·양태·우황·진 등을 서울 등지에 팔거나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장신구·화장품 등을 팔아 부자가 됐다. 기념관과 객주터는 인근에 탐라문화광장, 물사랑홍보관이 있는 금산생태공원, 올레 18코스, 산지천, 제주동문시장 등이 있어 구도심 문화관광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만덕(1739~1812)은 1794년 제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굶어죽는 백성이 속출하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양곡을 사 도민에게 나눠 주었다. 만덕의 선행은 정조에게까지 알려졌고 정조는 '관의 허락 없이 제주도민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규칙을 깨고 "임금이 계신 대궐과 영산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주고 상을 내렸다. 후에 대정현에 귀양왔던 김정희는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로운 빛이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글을 지어 김만덕의 선행을 찬양하기도 했다.

‘나눔 실천’ 여성 거상 김만덕기념관 개관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개관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9번째),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6번째), 정운찬 전 국무총리(“ 10번째),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8번째)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 거상 김만덕(金萬德·1739~1812년)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은 기념관이 29일 문을 열었다.

김만덕은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제주 백성을 구해 정조로부터 내의원(內醫院)에 속한 여의(女醫) 가운데 으뜸인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벼슬을 받은 인물이다.

제주시 산지천 하류 인근 1천982㎡의 부지에 들어선 김만덕기념관은 지상 3층, 전체면적 2천903㎡ 규모다. 국비 37억원, 복권기금 34억원, 도비 82억원 등 총 153억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1층에는 202석 규모의 나눔교육관, 카페테리어, 나눔장터, 물품보관실, 대기실 등이 마련됐다. 2층은 체험관, 메모리얼 홀, 휴게라운지, 세미나실 등이 들어섰다. 3층에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휴게홀, 사무실, 자료실, 수장고, 분류실 등을 갖췄다.

기념관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가 맡아 운영한다.

관람료는 어른 1천원(단체 800원), 청소년 및 군인 500원(단체 400원)이다. 초등학교생과 만 65세

이상은 무료고, 도민은 50% 할인한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날 기념관 개관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와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만덕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로 나눔쌀 2천kg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김만덕기념관 둘러보는 제주지사 산지천 하류 인근에 건립돼 29일 개관한 김만덕기념관 상설전시실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주 김만덕기념관



조선시대 정조 때 도민들을 구출한 의인 김만덕 할머니를 기리는 김만덕기념관이 29일 제주시 건입동에서 개관했다. 김만덕 후손 김균씨, 고두심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송필호 중앙일보 부회장 겸 위스타트 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왼쪽부터)이 개관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기념관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위스타트 제주센터도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제주 '김만덕 기념관' 개관

2015년 5월 29일

홍미은기자

조선시대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김만덕 기념관'이 5월 29일 개관했다.

기념관은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대 부지 1982㎡, 건축 총면적 2932.38㎡의 3층 규모로 160억5900만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 나눔교육관(1층), 기부센터와 체험관(2층), 전시실(3층)로 조성에 아이들의 학습공간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김만덕 기념관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공모로 새김만덕기념사업회를 선정해 지난달 15일 위탁과 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개관식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정운찬 전 총리, 고두심 새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대표와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나눔 실천’ 여성 거상 김만덕기념관 개관

200여 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김만덕을 기리는 김만덕 기념관이 29일 오전 10시, 1년 5개월 만에 공사 끝에 그 문을 열었다.

김만덕은 자신의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고 험벗고 굶주린 제주백성들을 구제해 조선 22대 임금 ‘정조’에게 내의원(內醫院)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벼슬을 하사받은 제주 최초의 여성이다.

김만덕 기념관 건립이 있기까지 김만덕 사업회는 의인 김만덕에 관한 연구와 1977년 만덕관 건립 이후 만덕제를 시행하며 지난 2007년 제주시 목관야지 일대에서 ‘나눔 쌀 천 섬 쌓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나눔에 동참하는 기업과 도민들의 힘으로 천섬이 훨씬 넘는 1277섬을 모았던 ‘나눔 쌀 천섬 쌓기’ 행사는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 ‘김만덕 나눔 쌀 만섬 쌓기’로 확대돼 전 국민에게 ‘제주의 혼불 김만덕’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만덕 사업회는 베트남 만덕학교 건립 등 해외 빈곤 아동들에게도 근본적 가난을 떨치게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개회식순은 국민의례 - 김만덕 기념관 경과보고 - 공로패, 감사패 수여 - 환영사 -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구성지 도의회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중앙일보 대표이사, 고두심 김만덕 기념관 상임대표, 현 도의회 의원들과 전 도의회 의장 등과 김만덕 후손 김균 등이 참석했다.

이은희 제주보건복지부 여성국장의 기념관 건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개회식이 시작됐다. 고두심 상임대표는 제주의 소리 고흥철 상임대표, 제주도 여성정책과 조순여씨, 제주시 서광로 고영숙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배우 고두심씨 © 정선에

이어 고두심 상임대표는 “날씨 좋은 날,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 자리만큼 ‘김만덕 거상’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좋은 ‘터’는 없을 것이다.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물심양면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환영사를 건넸다. 또한 해외 아동 복지 사업 등에 관한 ‘김만덕 사업회’의 사업방향에 대해 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서슴없이 손을 내밀겠으니 맞잡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 정선에

이어 원희룡 도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원 지사는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가 무엇일까? 대표하는 풍광은 무엇일까? 제주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참석자들에게 던지며, “제주의 대표 인물은 김만덕 할머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눔의 정신에서부터 평화의 섬 제주의 정신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술선수범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김만덕의 삶이야말로 제주가 배워나가야 할 근본 정신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 정선에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가난한 사람이 커는 소중한 등불 하나’라는 뜻의 불가에서 나온 ‘빈자일등’이라는 단어를 거론했다. “석가모니 시대에 가난한 한 여인이 하루 종일 구걸하고 얻은 한 톨로 등불을 켜니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 ‘빈자일등’에서 대부호지만 마음만은 진심어린 배려와 나눔으로 한 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김만덕’이야말로 ‘빈자일등’을 보여 주는 정확한 예다.” 전 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는 자연풍광 말고는 볼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곧 제주에 문화관광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번 기념관 건립이 제주 김만덕이라는 문화콘텐츠가 사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한 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각자의 거룩한 정신이 현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제주를 넘어 전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오전 11시 50분을 기점으로 참석자들은 대강당에서 기념관 밖으로 나와 테이프 커팅식을 치르고 김만덕 기념관의 본격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2015년 9월호

임은선 기자

복권기금과 만난 '나눔 실천 의녀' 김만덕

자신의 전 재산을 제주도민 구휼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만덕 할망'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지난 봄 개관했다. 나눔을 실천하는 복권기금은 기념관을 만드는 데 34억 원을 지원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2살에 부모를 잃고 기생의 몸종으로 살았다가 한때 유명한 기생이 되었던 김만덕. 가난한 집안, 전직 기생, 상인, 결혼도 못한 독신녀 김만덕을 위해 형조판서를 지낸 이가환은 시를 지었고 영의정을 지낸 체제공은 '만덕전'을 지어 바쳤다. 평범한 사람으로는 제대로 얼굴도 볼 수 없다는 왕을 알현하고 자신의 소원이었던 금강산 유람을 떠나는 등 여자로서, 평민으로서 누릴 수 없는 삶을 누렸다.

제주에서 김만덕은 '만덕 할망'으로 더 친숙하다.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만덕 할망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다"는 말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정조시대 제주도는 계속되는 재해로 기근에 시달렸다. 조

정에서 보낸 구휼미가 풍랑에 침몰하는 불상사까지 겹쳐 도민 대부분 아사의 위기에 처해졌다.

객주를 운영하며 제주도 물품과 육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을 하면서 거부가 된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구입해 제주도민을 살려냈다. 이 같은 공로로 여성으로서의 제일 높은 벼슬인 의녀반수(醫女班首)에 올랐고 제주도민은 만덕 할망을 신처럼 여겼다.

제주도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조선시대 여성 거상인 김

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지난 5월 29일 문을 열었다. 제주의 원도심인 산지천 하류 인근 1982㎡(약 600평)의 부지에 들어선 김만덕기념관은 지상 3층, 전체면적 2903㎡(약 880평) 규모로, 복권기금 34억 원을 비롯해 총 1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1층에는 김만덕 동상이 있는 만덕홀과 만덕카페를 비롯한 쉼터와 영화 상연, 다양한 공연 등이 열리는 나눔문화관이 있다. 2층은 나눔실천관으로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할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다.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등 다양한 나눔의 방식을 직접 체험해보고 나눔을 약속하는 나눔약속 타임캡

슐 써보기 등이 준비돼 있다. 3층은 상설전시관으로 김만덕의 역사적 기록과 각종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어 김만덕의 생애를 관람할 수 있다.

김만덕 기념관은 '김만덕의 정신을 담다'를 기본 목표로 김만덕의 삶을 알리고 그의 정신을 배우며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을 계승한 나눔 실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동, 초·중등 학생들을 유치해 아이들의 나눔과 배움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만덕 기념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만덕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인물입니다. 유교사회에서 가장 천하다고 천대받던 상인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던 여자로서 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과 정신을 알리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김만덕을 기념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후대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김만덕기념관을 만드는 데 복권기금의 도움이 컸습니다. 복권기금 역시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덕, 복권기금이 만나 만들어진 이곳은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야죠. 다양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기념관을 만들겠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에서 어떤 나눔을 실천할 예정인가요?

"개관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김만덕기념관을 통해 모여진 쌀 2.6톤이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농협과 함께 소량 쌀을 판매해서 기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기념관 주변에는 김만덕 묘가 있고 김만덕 객주 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만덕 기념관, 묘, 객주터를 잇는 나눔 올레길을 만들 예정이고요. 김만덕 나눔 봉사단도 만들 예정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제2의 김만덕, 제3의 김만덕을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베트남 칸호아제주초등생, 김만덕기념관 방문



베트남의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학생 10명과 교직원 등 15명이 제주한라초등학교 학생들은 2일 김만덕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날 기념관을 찾은 칸호아제주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은 김만덕 기념관 김상훈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베트남 만덕학교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때가 떠올라 감격스럽다”며 “김만덕의 고향 제주를 찾은 학생들을 환영하고, 기념관 방문을 통해 김만덕의 정신을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와 한라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1층에서 환영식을 마친 후, 1층 교육관에서 김만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3층 상설전시실과 2층 나눔체험관을 둘러보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칸호아제주초등학교의 자매결연학교인 제주한라초등학교의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쌀’로 잇는 김만덕 정신, 벌써 ‘4톤’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17일 나눔쌀 800Kg을 제주광역시 푸드뱅크,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에 기탁했다.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과 도내외의 기부자들의 정성을 모은 쌀로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가정위탁세대, 노숙인 지원센터에 전해질 예정이다. 김상훈 관장은 “연말을 맞이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나눔에 동참해주신 관람객과 도내외에서 정성을 모아 쌀을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로 도민들을 구휼한 김만덕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념관에서는 제주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더 찾아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광역시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의 고치환 회장은 “김만덕기념관과 이 곳을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김만덕할머니의 나눔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만덕기념관은 지난 5월에 2000kg, 6월과 7월 각 600Kg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까지 누적 4톤에 달한다.

김만덕기념관, 따뜻한 사랑 ‘나눔의 쌀’에 담아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따뜻한 사랑 나누기를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1,000Kg분량의 사랑의 나눔쌀을 도내 사회복지 단체와 시설에 기탁한데 이어 30일, 호스피스 무료의원 ‘성이시돌복지지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성이시돌요양원’에 나눔쌀 500Kg을 기탁한 것이다.

성이시돌복지지원 우정남(스바니아)원장과 성이시돌요양원 한승광(하비올라)원장이 함께 한 전달식에서 김상훈

기념관장은 “추위에 더욱 걱정이 많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이어가겠으며 나눔쌀 기탁은 연초에도 계속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성이시돌복지지원 우정남(스바니아)원장은 “뜻 깊은 사랑의 나눔쌀 기탁이 오늘 하루만의 도움이 아니라 그동안 김만덕기념관이 꾸준히 해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고맙다”고 소감을 전



했다. 한편 김만덕기념관은 앞서 나눔쌀 5,000Kg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한바 있어, 이날 기탁으로 인해 개관 이후 7개월동안 누적 나눔쌀 배분량은 5,500Kg에 달한다.

제주의소리

2015년 9월 8일

문준영 기자

김만덕 닮은 '제주인의 삶' 고스란히

김만덕기념관 첫 기획전 강만보 작가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지난 5월 문을 연 나눔의 성지,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에 낯설지 않은 사진들이 가득 들어찼다. 아기구덕을 흔들고 있는 우리네 어머니, 물허벅을 지고 올레를 걸어가는 여인네들, 바다에서 막 빠져나온 해녀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8일 오후 김만덕기념관의 첫 기획전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오프닝이 진행

됐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1970년대부터 제주지역의 생활상을 담은 강만보 작가의 다큐멘터리 스트레이트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근현대 제주지역 생활상을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다.

공동체 생활문화인 수놓음과 계,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마을제, 척박한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배려의 흔적들. 제주

다움을 그대로 품어낸 강 작가의 사진작품들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 날 오프닝에서 강 작가는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조금이나마 더 퍼트리기 위해 제주사람들의 삶의 모습, 제주인들의 개척정신을 실은 사진전을 기획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이 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김만덕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작가는 전시된 작품들을 김만덕기념관에 기증키로 해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상훈 관장은 "김만덕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과 배움, 도전과 개척의 삶을 살아온 제주인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을 첫 기획전으로 준비했다"며 "오늘 전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김만덕 할머니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사진대전에 9번 입상한 것과 더불어 제주도 예술인상,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제주한라문화제 금상 등을 수상했다.

주간기쁜소식

GOODNEWS WEEKLY

2015년 12월 16일

박정현 기자

나눔과 기부 문화의 표상, 김만덕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나눔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만덕 할머니이다. 정직하게 모은 전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두 바쳐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 기념관을 찾아 보았다.

굶주린 제주도민 위해 전 재산을 기부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 김만덕 할머니(1739~1812)의 나눔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 할머니의 공

로를 칭찬하며 친필로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널리 퍼진다)'란 글을 쓸 정도로 당시 김만덕의 나눔의 정신은 널리 퍼졌다. 만덕은 인간의 정직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객주 거상으로 큰돈을 벌었지만 항상 검소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 조선 정조시대 최악의 흉년이 계속되어 정조 19년 춘궁기에는 제주도민 수만여 명이 굶어 죽어나갈 때, 나라에서 보낸 구휼미마저 풍랑을 만나 모두 잃게 되자 김만덕은 전 재산을 내놓아 기근에 시

달리는 수만 명의 제주도민의 목숨을 구했다. 이에 정조대왕은 만덕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세에 알리도록 했다. 조선시대 처음으로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의식이 깨인 여성으로 이 시대 사회 지도층이 모범으로 배워야 할 표상이다. 2009년 KBS TV드라마 <거상 김만덕>이 방영되며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탤런트 고두심 씨가 할매 역으로 나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5만 원권 지폐가 나올 때 신사임당과 같이 유력한 후보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만덕기념관, 신년기획전 '금다화 - 제주의 빛을 ..



또한 금다화 작가가 바라본 제주 자연의 산과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제주의 보물을 다시한번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금다화작가는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 원희룡제주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다화- 제주의 빛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준비하였다. 전시는 1월 29일~3월 21일까지 김만덕기념관 1,2층에서 진행된다. 김만덕의 나눔의 상징인 쌀을 모티브한 막사발 주제의 작품은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베풀고 나누고자 했던 김만덕의 마음과 정신을 되새겨보게 한다.

는 작가로 제주에 이주해온 작가이다.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다화- 제주의 빛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준비하였다. 전시는 1월 29일~3월 21일까지 김만덕기념관 1,2층에서 진행된다. 김만덕의 나눔의 상징인 쌀을 모티브한 막사발 주제의 작품은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베풀고 나누고자 했던 김만덕의 마

음과 정신을 되새겨보게 한다.

또한 금다화 작가가 바라본 제주 자연의 산과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제주의 보물을 다시한번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금다화작가는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 원희룡제주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 제주에 이주해온 작가이다.

전시내용은 김만덕 구휼의 상징인 쌀과 이와 관련된 막사발(밥그릇)을 주제로 한 작품 13여점을 전시하여 나눔의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제주자연을 금다화 작가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그려낸 작품 27여점을 전시하여 관람객들과 새로운 제주자연의 모습을 나누고자 한다.

전시내용은 김만덕 구휼의 상징인 쌀과 이와 관련된 막사발(밥그릇)을 주제로 한 작품 13여점을 전시하여 나눔의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제주자연을 금다화 작가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그려낸 작품 27여점을 전시하여 관람객들과 새로운 제주자연의 모습을 나누고자 한다.



세계 최초 나눔 문화 기념관 올해 개관

지난 5월 개관한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먼저 각지에서 일반인들이 기부한 쌀 포대가 쌓여져 있었다. 지난 18일 어린이들이 모은 나눔 쌀 90kg을 김만덕 기념관(관장

김상훈, 제주시 산지로 7)에 기탁했다. 김지는 어린이집 원장은 "작은 마음이지만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한 봉지씩 가져온 쌀을 모아 기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제주에서 '나눔 쌀 천성

쌀기, 만섬쌀기' 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념관 객민 팀장은 "김만덕 할머니의 나눔의 정신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다른 나라에도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덕 기념관은 세계 최초의 나눔 문화 전시관으로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 또 다양한 기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제주도에 가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고 나눔의 정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김만덕 기념관을 가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김만덕기념관 공립박물관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김만덕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와 사무실, 향운·향습 장치 등의 전문 전시 시설

능체험관, 1층 나눔문화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층 상설전시실은 의인 김만덕을 조명하고, 2층 나눔체험관에서는 김만덕의 정신으로 대표되는 나눔과 실천 방법 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기념관 개관 당시 제주시 사라봉에 위치했던 만덕관에 전시된 유물 20여점을 이

의 요건을 갖춘 1종 전문박물관으로서 공립박물관의 지위를 갖게 됐다.

김만덕기념관은 연면적 2,902㎡의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3층 상설전시실, 2층 나

전해왔고, 김만덕 기록이 전해지는 유물 12건 80점과 강만보 선생의 근현대 제주사진 57점에 대한 구입·기증을 통해 유물을 확보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전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76책 희귀본과 풍부한 향토자료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 받은 ‘증보탐라지’ 등 3건 78점에 대한 구입이 확정된 상태이다.

또 소장유물 특별전을 통해 조선시대 정약용, 체제공, 박제가 등이 기록한 역사책 속에 의녀 김만덕의 행적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극심한 기근으로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내놓아 구제한 나눔과 기부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김만덕기념관장은 “이번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만큼 보다 다양한 기획전시와 학술세미나, 역사탐방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김만덕기념관’ 공립박물관으로 등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29일에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김만덕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와 사무실 △향운·향습 장치 등의 전문 전시 시설의 요건을 갖춘 1종 전문박물관으로서 공립박물관의 지위를 갖게 되어 역사성과 사료가치의 중요성을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김만덕기념관’은 연면적 2,902㎡의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3층 상설전시실과 2층 나눔체험관, 1층 나눔문화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층 상설전시실에서는 의인 김만덕을 조명하고, 2층 나눔체험관에서는 김만덕의 정신으로 대표되는 나눔과 실천방법 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기념관 개관 당시 사라봉에 위치하였던 만덕관 전시품 20여점을 이전해온 유물과 더불어 지난 2015년에 번암집, 고식 등 김만덕 기록이 전해지는 유물 12건 80점과 강만보 선생의 근·현대 제주사진 57점에 대한 구입·기증을 통해 유물을 확보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특히 전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76책 희

귀본과 풍부한 향토자료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 받은 ‘증보탐라지’ 등 3건 78점이 구입 확정되었다.

또한 소장유물 특별전을 통해 조선시대 정약용, 체제공, 박제가 등이 기록한 역사책 속에 의녀 김만덕의 행적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극심한 기근으로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내놓아 구제한 나눔과 기부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만덕기념관’ 김상훈 관장은 “이번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만큼, 보다 다양한 기획전시와 학술세미나, 역사탐방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유물 수집·연구를 진행하면서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고 도민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일보

2016년 3월 28일

박수진 기자

만덕봉사단, 애서원서 봉사활동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 만덕봉사단은 지난 27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애서원에서 올해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앞으로 만덕봉사단은 매월 1회 도내 복지시설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방문,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인뉴스

2016년 4월 25일

부창훈 기자

김만덕기념관, '조선의 왕들은 어땠을까?'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주최한 박시백 나눔특강 '조선후기의 주요왕들이' 도민과 관광객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이번 특강은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까지 조선후기의 왕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록의 기록을 재해석 해봄으로써 보다 쉽고 유쾌하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만덕기념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념관에서는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를 중심으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2016년 6월 3일

진순현 기자

"나눔의 정신"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인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정신을 알리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해 건립된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개관 1주년을 맞아 3일 관람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단,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창희 서울제주도민회장,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자회 회장, 김병립 제주시장, 도의원, 도내의 기관장, 도내 언론사 대표 등 도내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김만덕기념관 소장 유물전(6.3~8.3)' 오프닝에서는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의 선행을 기려 쓴 은광연세(恩光衍世) 편액과 김만덕의 선행에 대해 직접 기록이 되어 있는 '채제공의 번암집'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등 진본 문집들과 함께 최초로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기념식 중간에는 조선 정조시대 제주에 유배를 온 후 제주 여인 홍윤애(홍랑)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조정철(1751~1831)의 '정

현처감록(靜軒處坎錄)'을 소장자인 양의숙씨(KBS 진품명품 감정위원, 김만덕 기념사업회 이사)가 제주도에 기증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현처감록'은 조정철이 제주에 유배를 온 후 남긴 제주기사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현재 도내에는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기념관 앞 도로에서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11t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기부행사가 펼쳐져 김만덕의 나눔정신이 더욱 빛을 발했다.

김상훈 관장은 "김만덕기념관을 명실상부한 나눔실천·복합문화공간으로서 김만덕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만덕기념관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사랑의 쌀 나눔 실천을 해오고 있다.



제주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성황'



3일 제주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식 후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랑의 나눔쌀 전달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부된 쌀 11톤은 도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2016.6.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의인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정신을 알리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해 건립된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개관 1주년을 맞아 3일 관람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찬·김문자·문영자 공동대표,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창희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자회 회장, 김병립 제주시장 등 도내·외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김만덕기념관 소장 유물전' 오프닝에서는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의 선행을 기려 쓴 은광연세(恩光衍世) 편액을 비롯해 김만덕의 선행에 대해 직접 기록이 돼 있는 '체제공의 번암집',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등 진본 문집들이 최초로 공개됐다.

기념식에서는 영상상영과 감사패 전달에 이어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김만덕 브랜드 마케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 양의숙 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KBS 진품명품 감정위원)가 조선 정조시대 제

주에 유배를 온 후 제주 여인 홍윤애(洪允愛·홍랑)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조정철(趙貞喆·1751~1831년)의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을 제주도에 기증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헌처감록은 조정철이 제주에 유배를 온 후 남긴 제주기사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현재 도내에는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에 이어 기념관 앞 인도에서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11톤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기부행사가 펼쳐졌다.

김상훈 김만덕기념관장은 "개관 이후 1년 동안 기념관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념관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민들께 감사하다"며 "김만덕기념관이 명실상부한 나눔실천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김만덕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선양하기 위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만덕기념관은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사랑의 쌀 나눔 실천을 해오고 있다.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의인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정신을 알리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해 건립한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이 개관 1주년을 맞아 3일 관람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양원찬,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단,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창희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진춘자 김만덕상수상자회 회장, 김병립 제주시장, 도의원, 도내외 기관장, 도내 언론사 대표 등 도내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김만덕기념관 소장 유물전(6.3~8.3)' 오프닝에서는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의 선행을 기려 쓴 은광연세(恩光衍世) 편액이 김만덕의 선행에 대해 직접 기록이 되어 있는 '체제공의 번암집',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등 진본 문집들과 함께 최초로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이어 열린 개관 1주년 기념식에서는 영상상영과, 감사패 전달,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김만덕 브랜드 마케팅' 강연이 이어졌다. 특히, 기념식 중간에는 조선 정조시대 제주에 유배를 온 후 제주 여인 홍윤애(洪允愛·홍랑)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조정철(趙貞喆·1751~1831)의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을 소장자인 양의숙씨(KBS 진품명품 감정위원, 김만덕 기념사업회 이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헌처감록(靜軒處坎錄)'은 조정철이 제주에 유배를 온 후 남긴 제주기사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고 현재 도내에는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기념관 앞 도로에서 김만덕 사랑의 나눔쌀 11톤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기부 행사가 펼쳐졌다.

김만덕기념관

‘신(新)김만덕객주’ 체험프로그램 진행

‘김만덕의 장사원칙과 객주생활을 배워보고,

자신이 김만덕이 되어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아보는 체험프로그램’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지난 11일 제주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신(新)김만덕객주’라는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김만덕기념관 관람을 통해 김만덕의 장사원칙과 객주생활을 배워보

고, 자신이 김만덕이 되어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아보는 체험프로그램이다.

동문재래시장의 협조를 얻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모둠별로 시장에서 산 제주특산물들 각각 홍보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

건에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둠별로 만든 홍보자료는 김만덕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이며, 구입한 물품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신(新)김만덕객주’ 프로그램은 동문시장 활성화와 연계해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추가로 진행될 계획이며, 김만덕기념관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만덕나눔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 김만덕기념관 064-759-6093, 제주시청청소년수련관 064-728-1511

김제농협, 제주도 김만덕 기념관과 쌀 공급 협약



김제농협(조합장 고성곤)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김만덕 기념관(관장 김상훈)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거상 김만덕의 봉사정신을 본받고 김제 쌀 소비에 앞장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사랑의 쌀 나

눔사업, 사랑의 나눔 쌀 기부, 상호 발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 계승 실천과 김제 쌀의 이미지 개선과 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만덕 기념관 개관 1주년 행사에 김제농협 쌀 11톤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연간 70여 톤을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사업소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제주국제공항, 제주과학단지, 제주마사회 등에 김제농협 쌀을

공급 하고자 글로벌종합식품그룹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와의 계약에 이은 성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김제 쌀이 더 많이 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곤 조합장은 “거상이자 의인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의 뜻을 기리는 사업에 김제농협 쌀이 사용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더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김제농협과 금산농협이 출자에 설립한 자회사로 전북 김제에 본점, 제주시에 제주시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에서 120여억 원에 달하는 쌀 5,700여 톤의 매출을 거두는 등 김제 쌀 판매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신문

2016년 6월 13일

설윤숙 기자

김만덕기념관 꽃자왈 기획전, 양원찬박사 특강 성황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지난 9일 김만덕기념관 기획전 '제주에 숨을 불어 넣다 - 제주꽃자왈 탁현주전' 전시 오픈팅과 꽃자왈 애니메이션 '나' 상영, 양원찬박사(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의 특별강연 '세계자연유산, 시계시민과 함께 -꽃자왈을 중심으로'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획전은 2010년부터 줄곧 '제주꽃자왈'의 특별한 경험과 기억에 관련된 장소들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탁현주작가의 꽃자왈 관련 회화작품 26점을 기념관 1, 2층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상영 예정인 꽃자왈 애니메이션 '나' (초록별사람들 제작)는 꽃자왈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감을 더해줄 것이다.

특별강연에 나선 양원찬박사는 꽃자왈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추가해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보물로 지정,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꽃자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상훈 김만덕기념관장은 "이번 전시와 꽃자왈 특별강연은 김만덕기념관이 김

만덕의 나눔정신을 이어 사랑의 쌀을 나누는 것 외에도 '김만덕의 후손인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 계획했다"며, "우리들에게 휴식과 치유, 정화를 나눠주는 꽃자왈을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기념관에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시기간동안 김만덕기념관에서 꽃자왈 애니메이션 '나'를 매주 수요일, 일요일 10:30/14:30/16:30에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며, 매주 토요일 (8/20, 8/27, 9/3, 9/10) 오후 3시에는 꽃자왈과 관련된 연속 특별강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www.kmib.co.kr

2016년 9월 7일

주미령 기자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고 제2의 김만덕을 찾아보는 취지에서 2016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눔부분과 만덕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대상은 나눔부분의 경우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나눔에 대해 에세이 또는 사진·만화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만덕부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오늘날의 김만덕 모습을 찍은 사진작품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온라인접수 (manduk2016@naver.com)와 우편접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09-4, 2층 씨포스트제주)가 가능하다. 시상은 도지사상·교육감상 등 총 32작품에 대해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당선작품은 김만덕기념관에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 (www.mandukmuseum.or.kr)를 참조하거나 김만덕기념관 (064~759~6093, 064~759~6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2016년 9월 11일

문준영 기자

“기업 사회공헌? 재단 따로 만들지마라”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공헌 활동 횟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내 재단을 따로 만들어 사회공헌을 하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10일 오후 3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관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인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방식에 대한 맹점들을 꼬집으며 김만덕 할머니이야말로 오늘날 기업가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라고 강조했다. 예 이사장은 사회공헌활동이 결국 기업에게 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망설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공헌은 경영전략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며 “사회공헌을 하면 기업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로마 귀족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제국이 1000년을 가도록 유지시킨 비결이다. 바로 도덕성의 경쟁력”이라며 “이는 오늘날 기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들은 판매율과 시장점유율 증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회사운영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방식은 온전한 그 본질을 완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공헌이 있어도 기업가의 공헌이 없다. 법인 돈으로만 기부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카네기나 워렌버핏의 기부는 모두 개인돈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들이 기부한 것 중 개인돈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굳이 자체적인 재단을 따로 만들려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공헌도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직접하는 건 정말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가장 말리고 싶은 일이 개인이나 기업이 재단을 만드는 일”이라며 “재단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그 재단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실제로 목적사업에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기부하라는 제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사회적공헌의 좋은 사례와 나쁜 사

례로 각각 삼성과 유한킴벌리를 제시했다. 그는 “삼성 5000억원을 사회공헌에 투입했지만 그 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고 있는 유한킴벌리보다 인식이 좋지 않다”며 “유한킴벌리는 공익광고 한 곳에만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 반면 삼성은 ‘우는 애기 젖 주는 식’으로 수많은 단체에다 찢끔찢끔 돈을 나눠주는데 표시가 안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공헌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며 “사회공헌은 전문가들과 의뢰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가 궁극적으로 제시한 것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로의 변화.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자’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러면서 이 ‘공유가치’를 창출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만덕이라는 의견을 강조했다. 그는 소설 ‘숨비소리-조선의 거상 김만덕’ 중 ‘그깟 돈이 우리 동포 한 명의 목숨 값이나 될 것 같으냐? 재물은 다시 모으면 되는 것. 이 시각에도 서서히 죽어가는 제주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정신이 오늘날 어떤 기업의 사회공헌보다도 훌륭한 정신”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김만덕 할머니가 200여년전 행한 훌륭한 일은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 빛이 제주도를 넘어 전세계로 퍼져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김만덕기념관 'MOU' 체결



(사)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이선구 이사장)는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과 ‘상생의 가치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제주 김만덕기념관에서 24일 체결했다.

나눔운동본부는 서울, 인천지역의 홀몸노인들과 노숙인,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빨간밥차’를 이용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소외

계층(중증장애아동, 독거노인시설, 결식아동 등)에 쌀,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등 국내와 해외에 식량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국내에는 강남구청역 등의 지하철역과 각 교회에 쌀독을 설치해 배를 굶는 사람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는 13개국(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일본, 말레이시

아, 남수단, 탄자니아, 파라과이, 스리랑카, 레바논, 라오스)에 쌀독을 설치 운영하여 극빈층의 식량 지원에 역점을 두고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만덕기념관은 갑인년(정조 19년) 대흥년에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제주민을 살린 김만덕의 삶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녀의 도전정신과 나눔의 삶을 기리고자 조성된 기념관이다.

양측은 MOU에서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의 해외 13개국 빈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구촌 사랑의 쌀독’의 운영 협업 ▶제9회 사랑의쌀 나눔대상 시상식에 ‘김만덕 사회봉사상’ 제정 및 시상 ▶양측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사업에 적극 협력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형 ‘김만덕’ 브랜드 활용 고민해야”

김만덕기념관 26일 학술세미나…정형성 탈피 제안
문화자산 이해. 지역 공감. 관광 접목 등 접근 다양화

‘김만덕’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자산에 대한 이해와 시대 흐름에 맞춘 가치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 주최로 26일 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열린 ‘김만덕의 브랜드 자산화와 마케팅 전략’주제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사료적 한계를 대신해 지역 공감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덕’은 제주를 대표하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자선 사업가와 경제 수완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만덕상 시상도 이에 맞춰 ‘봉사’와 ‘경제’로 나눠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 인물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한 평가는 정형화된 내용과 달라 ‘브랜드’로 활용하는데 한계로 지적돼 왔다.

최근의 브랜드 마케팅 트렌드와 무에서 유를 창출한 ‘제주올레’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만덕에 대한 정형성을 탈피해 지역 회생, 문화관광 등 사회흐름에 맞춘 새로운 의미 부여에 무게가 실렸다.

윤영수 한국브랜드 마케팅 협회장은 “일본 ‘구마몬’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 자산 브랜드 가치는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를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택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김만덕 지역’이라는 장소적인 통합 브랜드를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원도심 산지천 지역과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김만덕 브랜드가 지역 주민의 자부심으로 이어진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장은 “제주공정여행에 생태에 이은 가치 테마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김만덕’”이라며 “교육,가족단위 등 세분화된 표적 시장에 맞춘 관광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만덕 나눔정신 널리 알리자” 제주서 ‘나눔 큰잔치’



조선시대 여성 거상 김만덕(金萬德·1739~1812)의 숭고한 나눔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제주 김만덕 기념관 일대에서 13일 제1회 나눔 큰잔치 행사가 열렸다.

개막식에는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교육감, 양원찬·김문자·문영자 김만덕기념사업

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 부지사는 “기부받는 사람도 좋지만 기부하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김만덕 나눔 정신이 가득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시상식과 떡 케이크 나눔이 진행됐다.



기념관 앞 광장에서는 아름다운가게 기부물품 접수·판매, 기부받은 책을 나눠주고 집에서 잘 보지 않는 책을 기부받은 나눔도서관, 사랑의 쌀 나눔 참여, 먹거리 나눔 등 나눔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노래자랑, 축하

공연 등 문화 행사도 열렸다.

행사장 인근 산지천 광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알리는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열렸다.

김만덕은 조선시대 흥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제주 백성을 구했다. 정조로부터 내의원(內醫院)에 속한 여의(女醫) 가운데 으뜸인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벼슬을 받기도 했다.

당시 좌의정이던 채제공(蔡濟恭)은 ‘만덕전’을 지어 그녀에게 전달했으며, 추사 김정희도 ‘恩光衍世’(은광연세·은혜로운 빛이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글로 김만덕의 선행을 찬양했다.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5월 김만덕의 생애를 기록하고 나눔·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만덕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기념관에서는 김만덕의 생애 이야기와 과거의 기록 등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현금·물품 기부, 헌혈·장기기증 등 다양한 나눔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기념관은 또한 각계로부터 쌀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 개최

[제주신문]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모티브로 열린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가 13일 김만덕기념관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 공식행사, 도민참여 체험부스, 사랑의 쌀·떡·주먹밥·차·쿠키 등 음식 나눔부스, 김만덕 오감 체험 전시 등

이 다채롭게 운영됐다. 이날 개막식 공식행사에는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교육감, 양원찬·김문자·문영자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만덕기념관 앞마당 메인무대에서 진행됐다. 개막식 공식행사에서는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시상식과 개막 떡 케이크 나눔행사가

진행됐다.

김만덕기념관 앞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건입동 새마을부녀회의 김만덕 김주먹밥, 만덕로터리클럽의 따뜻한 차와 떡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 나눔 부스가 운영됐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 생방송, 특집 라디오 공개방송, 즉석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한편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는 2016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만덕 나눔정신 실천해요” 제주시 나눔 큰 잔치



조선시대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제1회 김만덕 나눔 큰 잔치’가 13일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기념관 일대에서 열렸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이 주

관한 이날 행사는 김만덕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쌀, 떡, 주먹밥 등 먹거리 나눔 행사와 김만덕 오감체험 전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마련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로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개막식에는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양원찬·김문자·문영자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등 시민들과 함께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 공모전 시상식, 떡 케이크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김만덕기념관에 나눔쌀을 기부한 시민 김성은씨(58)는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은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가치”라며 “어른들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김남림씨(35·여·일도1동)는 “아이들이 전시와 체험 등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간접적으로나마 배우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들 목소리 헤드라인제주

2016년 12월 4일

홍창민 기자

김만덕기념관 ‘한중 서예명가 10인전’ 개막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 기획전시 ‘한중 서예명가 10인전-제주와 절강성의 오랜 인연’ 전시회가 4일부터 9일까지 김만덕기념

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응표, 양상철, 김영선, 이종선, 장세훈 등 한국작가 5인과, 니치이(倪

七一), 양수(楊曙), 저우형(周恒), 쉬중(徐忠), 왕취초(王旭初) 등 중국작가 5인, 위성근 국회의원,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문자, 문영자 공동대표, 서예가 한훤현병찬 선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뜻 깊은 전시의 개막을 축하했다. 특히 전시오프닝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서예 시연회를 진행하며 오프닝 참석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한중 문화교류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김상훈 김만덕기념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전시, 기획전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강연, 음악회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제주
Media Jeju

2016년 12월 7일

하주홍 기자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만덕할머니 손잡고 감感感感술래' 운영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소외 지역, 소외 계층 등을 위해 '상상창고 soom'컴퍼니와 협력해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을 올

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은 '만덕할머니 손잡고 감感感感술래'란 제목으로 김만덕을 오

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느끼고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월13일과 11월30일 김만덕기념관 나눔 큰 잔치와 월랑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12월 7일엔 남읍초등학교에 찾아가 운영한다.

김상훈 관장은“앞으로도 김만덕기념관에 접근이 힘든 시외지역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를 우선순위로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김만덕에 대해 보다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만덕할머니 손잡고 감感感感술래'는 사전 예약 신청으로 진행된다.

다른 목소리
헤드라인제주

2016년 12월 15일

신동원 기자

김만덕 나눔콘서트 '성향'... '음악과 함께 한 김만덕의 정신'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과 KCTV제주 방송(사장 김귀진)이 주최한 '코리아 솔로이츠 오케스트라 초청 김만덕 나눔콘서트'가 14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

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연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가득 메운 제주도민들을 위해 친숙하고 다양한 곡들로 꾸며졌다.

공연 1부에서는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over ture'를 시작으로 영화 미션의 ost '넬라 판타지아', 오페라 잔니스키키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삽입곡, 2부에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제주소년소녀 소리풍경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를 협연으로 감동의 연주가 진행됐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오케스트라 공연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참석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연주돼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의 무대였고 김만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상훈 김만덕기념관장은 "수준 높은 명품 공연을 통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제주도민들이 김만덕기념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전시관

김만덕기념관



2015년 5월 29일 개관한 김만덕기념관은
갑인년(정조19년) 대흥년에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제주민을 살린
김만덕의 삶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녀의
도전정신과 나눔의 삶을
기리고자 조성된 기념관입니다.

<http://www.mandukmuseum.or.kr/>

3층 상설전시실 '은혜로운 빛을 만나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였던 김만덕의 삶과
정신(도전-나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

2층 나눔실천관 '은혜로운 빛을 따르다'
나눔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눔의 실천을
체험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체험공간

1층 나눔문화관 '은혜로운 빛이 퍼지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은광衍世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창간호

창간호의 커버스토리는 김만덕기념관입니다. 김만덕은 '김만덕을 모르면 제주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생활 속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대부분 조선시대 여성은 성씨 본관이나 아무개의 부인, 모친 등으로 소개되지만 김만덕은 자신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된 묘소가 조성되고, 당시 많은 선비들로부터 선행을 담은 기록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기념관 개관 이후 행사와 나눔을 요약해서 보고하는 전반적인 개요를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편집되었습니다. 다음 호는 기념관의 기획전, 특강 등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고, 보유 유물의 심비 분석, 나눔을 실천하는 선행 사례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은광연세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는 전국의 독자들에게 김만덕의 삶인 도전정신과 나눔정신을 널리 알리고 성숙한 나눔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발간합니다.

은광연세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선행 사례가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편번호 63278) 또는 <http://www.mandukmuseum.or.kr>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에 올려 주시면 소식지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나눔실천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을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김만덕 사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농협 301-0185-2939-31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衍世 -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펴 낸 곳 김만덕 기념관
 펴 낸 이 관장 김상훈
 교 정 김현주, 김옥선
 진 행 객민, 고대일, 김미영, 김민아, 김창현, 김현주
 사 진 고대일, 신익재
 글 양진건, 김진철 (스토리북 나눔의 삶을 따라)
 일러스트 정지란(스토리북 나눔의 삶을 따라)

제 작 도서출판 비지아이
 발 행 일 2016. 12.22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63278)
 전 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2016 김만덕기념관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언론에 보도의 인용 기사는 해당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김만덕기념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부분과 아쉬운 점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2016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만덕기념관 임직원 일동



당신이 베푼 은혜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김안덕기념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우편번호 63278)

전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홈페이지: <http://www.mandukmuseum.or.kr>